

8월 MARKET INDEX		
코스피	▲10.89	2,745.05
코스닥	▲1.16	872.42
환율(원/달러)	▲1.4	1,361.50

에너지경제

8월 ENERGY INDEX		
휘발유(원/리터)	1711.40	▼ (-0.80)
경유(원/리터)	1560.15	▼ (-1.49)
LPG(원/리터)	969.95	▼ (-0.39)
(전국 평균) 출처=한국석유공사 오미넷		
WTI(달러, 8월)	78.15	▼ (-0.23)

제3517호

1989년 5월 26일 창간 35 2024년 5월 9일 목요일

www.ekn.kr

건설업 연체율 ↑...PF 정상화 방안 촉각

최근 은행권의 건설업 연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은행권은 건설업 중에서도 단기적이거나 일회성 요인으로 연체율이 일부 오른 업체들이 있는데다 건설업 연체율이 곧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다만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하는 PF 정상화에는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보다 시공사, 시행사에서 PF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8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원장은 “부동산 PF 등은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 등을 통해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며 “사업성 회복이 가능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질서 있는 연차기록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4대 은행, 건설업 연체율 작년 말 평균 0.37%→ 현재 0.78%로 상승
단기적·일회성 요인도 작용...“부동산 PF 연체율 상황 더 지켜봐야”

금융당국 정상화 방안 발표 앞두고 은행권 리스크 전이될까 우려감

은행명	2023년 3월 말	2024년 3월 말
KB국민은행	0.26%	0.41%
신한은행	0.46%	1.18%
하나은행	0.28%	1.13%
우리은행	0.46%	0.39%

금융당국은 조만간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연차기록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사가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 공동대출, 펀드 조성에 나설 경우 건전성 분류를 상향해주거나 면책 범위를 확대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캠프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저렴하게 넘기면 다시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매각 유인을 높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은 건설업 연체율이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방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건설업 연체율은 작년 3월 말 기준 평균 0.37%에서 올해 3월 말 현재 0.78%로 상승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은 0.46%에서 1.18%로 상승했고, 하나는 행도 0.28%에서 1.13%로 올랐다. 우리은행만 유일하게 0.46%에서 0.39%로 낮아졌다. 은행권은 건설업이 다른 업종 대비 경기 변동, 정부 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임을 고려해 다른 업종 대비 여신 심사나 리스크 관리를 보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권 전체 여신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특히나 올해 3월 말 기준 단기적, 일회성 요인으로 연체율이 일부 오른 업체가 있기 때문에 최근의 연체율 상승세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건설업 연체율은 산업분류코드상 건설업으로 분류된 모든

대출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건설업 연체율이 곧 부동산 PF 연체율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며 “연체율 상승이 3월 말 일시적인 요인으로 오른 건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등에 대해서는 세부 요인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PF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에 부담을 떠넘기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있다.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가 큰 브릿지론이나 탄탄하지 않은 사업장을 떠안는 것은 근본적인 ‘정상화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오랜 기간 본PF로 전환되지 않은 부실 사업장을 과감하게 정리하지 않는다면, 자칫 2금융권의 리스크가 1금융권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업성만 좋으면 면책, 인센티브가 없어도 각 금융사들이 해당 사업장을 인수하는데 혈안이 됐을 것”이라며 “은행권에서 부실 사업장을 떠안는 것이 아닌, 시공사, 시행사 등에서 사업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해주는 게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구원투수’로 나서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나유라 기자 ysl106@ekn.kr

DB하이텍 ‘자사주 매입’ 추진 허탈한 소액주주 “소각이 우선”

삼성證과 200억 규모 신탁계약
사측 ‘주가 안정·주주가치 제고’
주주연대 “타社 소각 본받아야”

DB하이텍이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히면서 주주들의 허탈감도 커지고 있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다면 자사주 소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소액주주연대 측 설명이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지난 7일 DB하이텍은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삼성증권과 총 2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기간은 8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다. DB하이텍 측은 자사주 매입 이유에 대해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 목적’이라고 적었다.

이에 DB하이텍 소액 투자자들은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 반대할 의향은 없으나 회사측이 밝힌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라면 자사주 소각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에 진행된 주주총회에서도 소액주주들은 자사주 소각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사실상 거부의를 나타낸 바 있다.

당시 이상목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총회에서 “주주 환원이 목적이라고 명확하게 공시한 만큼,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공시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는 “자사주는 사실 여러 가지 활용성이 있다”며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외부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소각도 물론 고려하고 있지만 만일 재원이 필요할 때 자사주를 활용하지 못하면 보유중인 현금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해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자사주 취득은 지난해 진행한 1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에 이어 추가 취득이다. DB하이텍은 지난해 1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으며 회사측은 이번 자사주 취득으로 자기주식 지분율은 6.14%에서 7.14%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DB하이텍은 자사주 비중을 15%까지 확대해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들에게 환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자사주 취득만 이뤄지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에 있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자사주 취득과 소각의 배당 효과 보고서를 통해 “국내 특성상 자사주취득을 액면 그대로 배당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취득된 자사주 중 극히 일부만이 소각되고 있어, 대부분의 자사주취득이 일시적인 효과를 유발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목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반대할 뜻은 없다. 하지만 주가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입한 자사주를 어디에 사용할지 주주들의 의견은 더 깊어질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경우도 1500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발표하는 등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서울 백만장자 8.25만명...10년간 28% ↑

2024년 세계 부자 도시 50곳

美증시·비트코인 상승에 19위로 ↑
슈퍼리치 억만장자도 日보다 많아
뉴욕 35만명·중산전은 증가율 1위

미국 나스닥 지수 등 글로벌 증시와 비트코인 시세 상승으로 세계 곳곳에서 부자들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서울에서도 자산이 100만달러(약 13억6000만원) 이상인 백만장자 수가 8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슈퍼리치’ 억만장자(자산 10억달러 이상) 수는 일본 도쿄와 오사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세계 부자 도시 50곳’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백만장자 수는 8만2500명으로 집계되면서 19위에 올랐다. 이번 보고서에서 백만장자는 투자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100만달러 넘게 보유한 개인으로 정의됐다.

세계에서 백만장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뉴욕(34만9500명)으로 나타났으며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30만 5700명), 일본 도쿄(29만8300명)가 뒤를 이었다. 4위는 싱가포르(24만4800명)가 차지했고 런던(22만7000명)과 로스앤젤레스(21만2100명)로 각각 5위, 6위를 차지했다.

2013년부터 10년 동안 백만장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도시는 증가율 140%를 기록한 중국 선전으로 나타났다. 2위는 항저우(125%)가 차지했고 미국 오스틴과 광주우가 110%로 공동 3위에 올랐다. 뉴욕과 베이 에어리어는 각각 48%, 82%씩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 10년간 백만장자 수가 28% 증가해 증가율 31위를 기록했다.

주요 스테펜 헨리앤파트너스 최고경영자(CEO)는 세계 곳곳에서 자산이 늘어난 핵심 이유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최근 몇 년간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P500 지수는 지난해 24%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와 비트코인이 43%, 155%씩 폭등하면서 투자자들의 자산이 증식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기간 백만장자 수가 감소한 도시도 주목받는다. 지난 10년간 백만장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도시는 러시아 모스크바(-24%)로 나타났다. 일본 오사카(-12%), 영국 런던(-10%)도 뒤를 이었다. 도쿄와 홍콩도 각각 5%, 4% 감소했다.

런던의 경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이 있었고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고강도 방역규제로 백만장자들이 싱가포르로 이주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분석했다.

스테펜 CEO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스크바에서 백만장자 인구가 급감했다”며 “이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에서 부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인도 벵갈루루, 미국 스코츠데일, 베트남 호찌민을 향후 10년간 자산이 가장 크게 오를 도시로 기록했다.

한편, 서울의 억만장자 수는 20명으로 15위를 기록했다. 도쿄와 오사카의 억만장자 수는 각각 14명, 5명으로 이를 모두 합쳐도 서울보다 적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의료공백 장기화에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까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외대 정원 증원을 두고 의정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원객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혼돈의 글로벌 정세...韓기업, 신시장서 활로 찾는다

러시아·중국에 정치·경제적 이유로 서구권과 각을 세우며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자 우리 기업들도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구촌’에 제품을 수출하며 먹고살았던 과거 성공 방정식으로는 앞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적극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우위를 확보하며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다.

8일 경제계에 따르면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며 정립됐던 국제 질서는 최근 붕괴 위험에 놓였다.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급작적인 사건을 겪으며 각국의 경제 환경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중동 등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세계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던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로 노선을 수정했다. 곳곳에서 기상이변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만 ‘탄소 중립’ 달성에 대한 속내도 모두 다르다. 주요국에서는 극우·극좌 정치인들이 득세하며 ‘정치리스크’까지 불거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진행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 역시 이 같은 ‘신냉전’ 구도를 잘 보여준 예로 꼽힌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라·중, 정치·경제적 서구권과 대립
美 자국우선주의 등 불확실성 확대
현대차·삼성, 인도 등 새 거점 확보
조선·반도체도 기술 초격차 승부수

국가 상당수는 이번 행사가 불참하며 푸틴이 합법적으로 러시아 대통령으로 선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러시아 주재 대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다고 서방과 러시아·중국에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유럽 순방길에 나서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친중 성향이 강한 동유럽은 물론 프랑스 등에서도 협력관계를 다지며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필요한 시점에만 손을 잡는 전략적 동반자 성격이 강하다.

글로벌 정세가 복잡하게 흘러가면서 우리 기업들도 해법을 찾고 있다. ‘신냉전’이 단순한 이념 대립을 넘어 경제적으로 ‘자국우선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의 주도권 싸움이라는 점을 간파하고 이를

파고들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신시장 개척이다. 세계는 인공위·자원이 풍부하고 △경제가 고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조업 기반이 마련된 국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1년 사이 인도를 두 차례 방문했다. 세계 최대 규모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지난해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다. 내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4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에 생산 거점을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2월 브라질도 찾았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면담하고 현지 투자를 약속했다. 작년 9월에는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 거점인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셀 합작공장도 점검했다.

삼성전자 역시 인도·브라질 등에서 갤럭시 신제품을 먼저 선보이고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신시장 개척에 공을 들이고 있다. LG전자는 필리핀, 인도, 캐나다, 브라질, 중국 등 전세계 40여개 국가에서 50여개 언어를 지원하는 전화·챗봇 등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여현우 기자 yes@ekn.kr

“지자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2018년 대비 40% 감축”

17개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내달 ‘2050 탄녹위’에 보고
서울지역,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 열릴 것으로 기대”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한 계획은 다음 달 말까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된다.

각 지자체들은 이번 보고를 통해 자원순환 복합타운·녹색기후복합단지 조성, 6000만 그루 나무심기 등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지자체가 세운 지역별 탄소중립 실천전략인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마련됐다.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각 지자체가 지역의 현상 여건과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중립 정책을 기획, 지방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한 탄소중립 행동지침이다.

지자체들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참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약 4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서울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총량제를 도입해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물 및 상업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등급을 공개하고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산은 자원순환복합타운을 조성해 대도시 내 (매립장 인근) 집적화 및 폐자원순환기반을 구축하고, 대구는 2026년까지 누적 6000만 그루 나무를 심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을 조성한다.

인천은 녹색기후복합단지를 조성해 녹색기후 분야 국제기구 및 연구·금융기관 간 국제협력 플랫폼을 제공한다.

울산은 ‘울산 트램’을 도입해 육상수송부문에서 무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후환경에너지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에 기반해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을 통한 산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며, 충남도는 스마트팜과 재생에너지 설비로 탄소중립 산업단지를 도입한다.



인천 녹색기후복합단지 조감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계획도 눈에 띈다.

세종은 제로에너지타운을 조성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 지열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전남도는 전남 서남권 8.2기가와트(GW), 여수 삼산면 4.7GW 등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구축하고, 강원도는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에 전력 소비가

많은 데이터센터와 지열 수열에너지 전력을 공급한다.

제주도는 청정 복합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만든 수소인 그린수소 발전으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탄소중립 자원센터’ 지정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내에 ‘엑트센터’를 운영해 지

지자체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

환경부

지자체	사업명	사업개요
서울	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등급제 및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물 및 상업 건물 대상 에너지 사용량·등급 공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부여 및 관리
부산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	대도시내 (매립장 인근) 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으로 집적화 및 폐자원 순환기반 구축
대구	Forest 대구 프로젝트	2026년까지 누적 6,000만 그루 나무 식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 등
인천	녹색기후복합단지 조성	녹색기후 분야 국제기구 및 연구·금융기관 국제협력 플랫폼 조성
광주	광주 온도 낮추기 우수아파트 조성	공동주택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지급
대전	첨단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효율적 교통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울산	울산 트램 도입	수소전기트램 설치·운영 (2029년까지 트램 1호선 개통, 2032년까지 총 2개 노선 24.7km 건설)
세종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수소연료전지발전소, 태양광/지열 발전시설 설치 및 모니터링 고도화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추진
경기	기후환경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도시생태환경지도 기반의 초정밀 공간 데이터 구축해 탄소 관리
강원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환경 데이터 집적단지, 스마트팜, 물에너지 집적단지 구축
충북	탄소·포집·저장(CCUS) 기술을 접목한 저탄소 연료화 추진	시멘트산업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연료화
충남	탄소순환형 산업단지 그린아노파크 조성	산업단지 내 스마트팜과 신재생에너지 시설 융복합으로 탄소순환 가능한 친환경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탄소중립 목조건축 활성화	전북 동부권을 목재공급처로 서부권을 목재수요처로 활용하는 산림자원 순순환 체계구축
전남	해상풍력 융합 클러스터 조성	전남 서남권(8.2GW), 여수 삼산면(4.7GW) 등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경북	이차전지 육성거점센터 구축	이차전지 소재 물성분석, 공정개발, 평가 및 시제품 제작 등 전과정 지원
경남	수소 생산설비 및 배관망 구축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수소액화 실증플랜트, 수소 교통 복합기지 건설
제주	그린수소·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대전환	무탄소 에너지 전환 및 혁신성장 소비 감축

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공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제출된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 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이를 다음 달 말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어 이달 안에 시도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전문을 탄소중립정책

포털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창홍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지역은 탄소중립 정책이 구체적으로 이행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소중립의 주체”라며 “이번 시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이 기록적 가 돼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편의점에 코인 도시락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마트24와 제휴하고 추첨을 통해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도시락을 출시했다. 이색 이벤트를 통해 20대 신규고객을 추가로 확보하고 정제된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마케팅 일환으로 풀이된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이마트24와 제휴, 전일부터 각 지점에서 ‘비트코인 도시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비트코인 도시락은 53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빗썸 계좌로 최대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쿠폰이 들어있다.

해당 쿠폰은 오는 31일까지 등록 가능하며, 누구나 1만원어치 비트코인을 빗썸 계좌로 지급한다.

또한 지난 6일까지 빗썸 거래소에 NH농협은행 계좌를 연동한 적이 없는 고객에 한해 추가 2만원을 지급한다.

단 6월 12일까지 계좌를 연결하지 않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마트24와 제휴하고 추첨을 통해 비트코인을 지급하는 도시락을 출시했다. 이마트24 유튜브 캡처

석된다.

빗썸 역시 증권사들의 선례를 벤치마킹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 국내 점유율이 10% 안팎에 불과했던 빗썸은 작년 10월부터 전면적인 수수료 무료 정책을 실

빗썸, 이마트24와 손잡고 ‘비트코인 도시락’ 출시
최대 3만원 비트코인 지급, 취약계층 도시락 기부도
과거 ‘주식 도시락’ 데자뷰…점유율 확보 성공할까

또한 비트코인 도시락이 판매된 만큼 추후 빗썸 측에서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도시락을 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식시장이 활황이던 지난 2021년에도 각 증권사에서 주식과 편의점 도시락을 결합한 이색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하나금융투자(현 하나증권)는 이마트24와 제휴해 도시락 구매 후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주식 1주를 제공하는 이색 이벤트를 진행했다.

유안타증권 역시 편의점 CU와 손잡고 선착순 고객 1만명에게 최대 138만원 상당의 주식을 지급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해당 이벤트들은 성과를 거두지 않음으로써의 경우 2만5000좌가 넘는 신규 계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안타증권도 약 7000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편의점 도시락의 주 수요층인 MZ세대 신규고객 유입이 증가했을 것으로 분

성우창 기자 suc@ekn.kr

에너지 경제의 힘. 삶의 근원

아파트 하자 분쟁 10년새 2배… ‘날림 공사’ 언제까지?

이슈분석

1군 브랜드 아파트, 사전점검서 곳곳 ‘대량 하자’ 노출
공기 쫓기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부실시공’ 만연
10년전 대비 분쟁 2배 증가…높아진 국민 의식도 한몫

하게 번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경북 경산 아이파크 1차 아파트에서도 사전점검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오물과 낙서, 마감 불량뿐만 아니라 외벽 균열 등의 하자가 발견됐다.

경북 대구에서는 북구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에서 벽지 오염이나 타일 파손, 내부 벽 균열 등 총 6만6411건의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대구에선 달서구 ‘뉴센트럴 두산위브더제니스’, 동구 ‘동대구역 엘크루 더센트럴’ 등지에서도 누수와 벽 휨 현상 등 하자가 발생해 입주자들의 지적을 받았다.

지나치게 짧은 공기, 일일직 근로자들의 허술한 마무리, 시공사의 책임 의식 결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실제로 품질점검단 입장으로 현장을

나가보면 공기가 타이더해서 공정 자체가 몰리다 보니 하자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입주자의 사전점검 의식이 높아진 만큼 건설사도 그에 맞는 리스크를 안고 경영환경을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공사-입주자간 하자 분쟁이 최근 10년새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자는 보통 균열, 누수,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파손, 설계도서 상이시공 등을 하자라고 부른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사건이 처리됐다. 특히 2014년 기준 약 2000여건에 비해 10년간 두 배가 넘게 증가했다.

건설업계에선 건설 경기 불황 속 정부의 신속한 주택공급 기조로 인해 공기가

단축되면서 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건설사가 최저 입찰로 하도급사를 선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칫값과 인건비를 절약하다 보니 시공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입주자들이 전문 대항업체를 고용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꼼꼼히 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도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 일부 입주자들은 배관이나 전선 등 상태를 확인하는 ‘열화상 카메라’나 수직·수평 여부를 판단하는 ‘레벨기’, 기울기를 측정하는 ‘수평기’, 라돈 측정기 등 전문장비가 동원해 사전 점검에 나선다. 3.3㎡당 (평)당 비용은 1만~1만5000원 선이다.

하자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A변호사는 “수분양자 입장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 티끌 하나도 용납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처음부터 하자소송 전문업체를 고용해서 하자를 대응하는 등 권리의식이 과거보다 높아져 하자소송이 전보다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쿠팡 “알리·테무 위세 실감”…투자 6.5조 증액 ‘쩐(錢) 대응’



쿠팡이 명품 온라인플랫폼 ‘파페치’ 인수와 중국 이커머스업체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이른바 ‘C커머스’ 공세 등 여파로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 대폭 감소와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비록 1분기에 매출 9조원대 달성으로 견고한 외형성장을 이어갔음에도 수익 악화로 전환되자 쿠팡은 다시 특유의 ‘투자 확대’ 전략으로 수익 반등의 물고 돌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쿠팡Inc가 8일(한국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 1분기 매출은 지난해 1분기(7조3990억원·58억53만달러)보다 28% 늘어난 9조4505억원(71억1400만달러·분기 평균환율 1328.45원)이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531억원(4000만달러)에 그쳐 전년동기 1362억원(1억677만달러)와 비교해 61%나 감소했다. 쿠팡의

1분기 매출 9조 첫 돌파 불구 영업이익 61%↓, 당기순이익 적자 전환
김범석 의장 “C커머스 국내 진입장벽 낮아 고객 쉽게 전환” 지적
국산제품 구매 17조→22조, 고객혜택 4조→5.5조 공격투자 방침

영업이익 감소는 지난 2022년 3분기 첫분기 영업흑자 전환 이후 처음이다.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1분기 당기순손실 318억원(2400만달러)으로 2022년 2분기(당기순손실 952억원) 이후 처음이자, 7분기만에 적자를 낸 것이다.

쿠팡은 2022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6분기 연속 당기순이익 흑자행진을 이어갔고, 지난해 1분기엔 1160억원(9085만달러)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1분기 영업이익 급감 및 당기순이익 적자에 쿠팡은 “파페치 인수 여파와 함께 알리·테무 등 C커머스 공세 영향도 두루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된 명품 온라인 플랫폼 파페치의 매출(3825억원·2억8800만달러)을 제외한 쿠팡 1분기 매출은 9조68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 상승했다. 쿠팡은 올해 1월 파페치 인수를 완료했으며 이번 1분기부터 실적에 편입시

켰다.

특히, 1분기 수익 악화 원인으로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진출 영향이 컸다고 쿠팡은 분석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 겸 창업자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새로운 중국 커머스업체들의 국내 진출은 유통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으며, 그 어떤 산업보다 소비자들에게 클릭 한 번으로 몇 초만에 다룬 쇼핑 옵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고객은 구매할 때마다 새롭게 선택을 하고, 더 좋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소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뒤 “우리는 최고의 상품군과 가격,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며 C커머스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를 위해 수수료율 달리 규모의 물류 투자를 통한 무료배송 확대 △ 한국에서 만든 제조사 제품의 구매와 판매 확대 △

와우 멤버십 혜택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김 의장은 밝혔다.

앞서 쿠팡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해 김천·광주 등지에 신규 물류센터 8곳을 운영하고, 2027년까지 전국민 5000만명 대상으로 로켓배송을 추진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1분기 수익 악화에 자극받은 쿠팡은 국내 제조업체에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7조원(130억달러) 규모의 국산제품 구매 및 판매 금액을 올해 22조원(160억달러)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고객 혜택도 강화한다. 지난해 무료배송과 반품, 전용할인 등에 4조원(30억달러)의 와우멤버십 혜택을 제공했지만, 올해는 더 늘어난 5조5000억원(40억달러)을 투자할 예정이다.

김범석 의장은 “2024년은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제조업과 중소기업 파트너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상품과 가격, 서비스 전반에 걸쳐 고객에게 새로운 ‘와우’의 순간을 선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은 기자 pr9028@ekn.kr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K패스-경기

전국 모든 대중교통 다! 경기도민이라 혜택도 더!

전국 모든 대중교통 다! 경기도민이라 혜택

다도고

A man with dark hair and round glasses is looking down at a white smartphone. He is wearing a green and white striped shirt.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large, 3D, blue and yellow Korean text that reads '다도고' (Dado-go). The text is stylized with a yellow outline and a blue fill. The overall scene suggests a promotional image for a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

K패스-경기

The 경기패스

지원범위

전국 **모든** 대중교통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 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제외

지원내용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한 없이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 환급

- 19~39세 청년: 매달 교통비의 30% 환급

- 40세 이상: 매달 교통비의 20% 환급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은 교통비의 최대 53% 환급

* 6~18세 도민은 연24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참고)

신청방법

K-패스 또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K-패스(www.korea-pass.kr),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2024년 5월 1일부터 사업시행

관련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5월 8일 부터



삼성카드, 업계 불황 속 ‘숨은 진주’

김대환 사장 ‘효율 경영’ 독보적 성장세 견인

1분기 당기순이익 1779억원
전년동기 대비 22.3% 증가
순이익, 신한과 불과 72억 차이
영업익 2412억으로 신한 제쳐
“김사장의 수익성·효율 중심
경영 기조 효과 발휘” 분석
데이터 사업 강화 통해
새로운 수익성 확대 꾀할듯



김대환 삼성카드 사장

기록했다. 신한카드가 LG카드와의 합병으로 자산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고려하면 삼성카드가 보다 높은 이익률을 낸 것으로 평가된다. 총자산수익률(ROA)도 전년동기 대비 0.6%P 상승한 2.8%를 기록해 신한카드의 1.75%보다 약 1%P 높았다.

이는 김 사장의 수익성과 효율 중심 경영기조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사장은 자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수익성이 낮은 업종에서 이용금액을 줄이는 등 체질개선에 나섰다. 김 사장은 앞서 회사 성장의 조건으로 리스크와 효율 관리를 강조해왔다. 올해 신년사에서 김 사장은 “회사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와 효율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전략을 이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사장은 1분기 임직원 임금과

광고선전비, 판촉비 등에 사용하는 판관비에 4638억원을 쓰면서 전년 대비 3.7% 아끼고 전년보다 4.1% 가량 줄였다. 지난 1월 6억달러(약 8300억원) 규모의 외환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면서 올 1분기 이자비용은 1233억원까지 낮췄다. 전 분기 대비 15억원을 절감한 수치다. 3월말 기준 ABS발행 비중은 21.2%로 4.2%P 상승하는 등 회사채나 일반대출 등을 줄이고 ABS 발행량은 늘렸다.

삼성카드는 지난해부터 위험차주의 신용한도를 축소하면서 연체율과 부실채권(NPL) 비율도 낮췄다. 30일 이상 연체율은 1.1%로 전년 말 대비 0.1% 내려가면서 업계 최고수준으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했다. 은행계 카드사가 모두 연체율이 올랐지만 삼성카드는 내려갔다. 대손비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 감소해 1753억원으로 줄었다.

삼성카드 외에도 다수 카드사들이 판관비 축소 등 효율 경영책으로 이번 1분기 선방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삼성카드는 장기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094억원으로 전년보다 2.1% 줄었지만 2021년과 비교해 10.6% 뛰어올랐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 당기순이익은 △2021년 6763억원 △2022년 6446억원 △2023년 6219억원으로 점진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유일하게 전년보다 증가한 실적을 기록한 현대카드의 경우 3년간의 추이를 보면

2021년(3141억원) 대비 15.6% 뒤통을 맞았다. 2022년 현대카드 대손비용은 전년보다 29.6% 증가한 4315억원을 나타내며 실적 발목을 잡았다. 지난해 실적향상이 직전년도 실적 급감 폭으로 인한 기저효과일 수 있던 의미다.

신용판매 취급액에 따라 살펴본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21년 신한카드 18.40%, 삼성카드 16.15%, KB국민카드 15.34%, 현대카드 14.35%였지만 2023년 신한카드 17.57%, 삼성카드 16.26%, 현대카드 15.50%, KB국민카드 14.37%로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한 카드업권 관계자는 “개인 무이자할부 축소 등 시장점유율 확대 전략에 힘을 뺐는데도 실적을 유지한 점은 내실 경영측면에서 보다 역량이 있음이 입증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형 성장은 당분간 주춤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알짜카드 단종과 국제 및 지방세에 대한 무이자 할부 혜택 축소 등 무수익성 마케팅 활동을 줄이면서 방어적인 경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데이터 사업 강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성 강화를 꾀하고 있다. 김 사장은 앞서 “플랫폼과 데이터가 강한 회사를 만들 것”이라며 “다른 업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플랫폼과 데이터 경쟁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 마이데이터, 데이터전문기관, 개인사업자신용평가(CB)업 등 데이터 사업 관련 3종 허가를 받아 데이터 사업 진출을 위한 체비를 마쳤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5대銀, 자영업자 대출 연체 1조원 ‘홀쩍’

1분기말 1개월 이상 연체 총액 1조3560억, 작년 동기 比 37.4% 급증

고금리가 지속되자 제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1분기 말(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이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314조6860억원에서 322조3690억원으로 2.4% 증가했는데, 연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는 지난해 1분기 말 173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40억원으로 52.6% 증가했다. 연체율도 0.20%에서 0.29%로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연체가 2150억원에서 2660억원으로 23.7% 늘고, 연체율은 0.33%에서 0.40%로 상승했다. 하나는 행도 2410억원에서 2770억원, 0.41%에서 0.47%로 연체와 연체율이 증가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연체가 1650억원에서 2030억원으로 22.7% 늘었다. 연체율은 0.32%에서 0.40%로 높아졌다. NH농협은행 역시 연체가 1930억원에서 3460억원으로, 연체율이 0.36%에서 0.63%



서울의 한 시중은행.

로 크게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 만기가 점차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팬데믹 기간에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지원이 많았는데, 해당 대출 연체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은 고금리 부담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지면 연체도 누적될 수밖에 없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케이뱅크·신한카드, 일상 할인 혜택카드 선택

4번째 제휴카드…10만원 이상 결제시 10만원 입금 등 최대 14만원 혜택

케이뱅크는 신한카드와 제휴한 ‘케이뱅크(Kbank) 신한카드 플리’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4번째 제휴 신용카드로 단순한 조건으로 일상 할인 혜택을 담은 Kbank 신한카드 플리를 선보인다.

이달 31일까지 두가지 이벤트를 실시해 최대 1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1’은 10만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30일까지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7월 31일 이전 카드 결제계좌로 10만원이 입금된다.

두 번째는 ‘자동 납부 이벤트’다. 6월 30일까지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 전기요금, 4대 사회보험료, 통신요금, 스쿨뱅킹(학부모부담금), 신한카드 마이(My)월세, 주택임대료 등을 최초 납부하면 항목당 5000원 캐시백을 받는다. 8개 모든 항목에서 혜택을 받으면 최대 4만원까지 7월 31일 이내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두 이벤트 혜택을 받으려면 최근 6개월간 신한 개인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없고, 자동이체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한다.

Kbank 신한카드 플리는 실적 조건과



최대 14만원 혜택 돌려받는
Kbank 신한카드 플리

할인 한도 없이 신한솔(SOL)페이로 국내 가맹점에서 결제 시 0.9% 할인 혜택이 가능한 것이 큰 특징이다. 카드 결제일에 결제 금액의 0.9%가 할인돼 청구된다. 매주 쿠폰 할인 서비스와 단골 가맹점 적립 서비스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제휴 신용카드를 케이뱅크 앱에서 상품 탭 중 카드에서 가입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2022년 롯데카드를 시작으로 삼성카드, KB국민카드와 손잡고 제휴신용카드를 선보였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신한카드와 제휴 신용카드를 내놓으면서 최대 14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캐시백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생활 속의 케이뱅크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주담대 신청때 금리 3%→실행때 4%…“기준금리 따라 변동”

금감원, 민원 사례 토대
대출시 소비자 유의할점 안내
대출 실행일 기준 금리 반영.
기준금리 변동따라 달라질수도
전세대출 실행일 기준금리
실행일 기준금리
실행일 기준금리

#A씨는 매스컴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알아보던 중 대출이자자가 가장 낮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된다는 정보를 보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 A씨가 대출신청 당시 조정한 금리는 3%대였으나, 은행이 민원인에게 통보한 심사결과상 대출금리는 이보다 높은 수준(4%대)이었다. 실제 대출 실행일에는 이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제시됐다. A씨는 잔금 지급일이 임박해 타행 대출을 알아보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으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최근 접수, 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토대로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A씨 사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 실행일의 기준금리가 반영되므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조화 시점의 예상 금리와 달라질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



대출 신청시 예상 조화하면 및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변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산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리는 대출 실행일 시점의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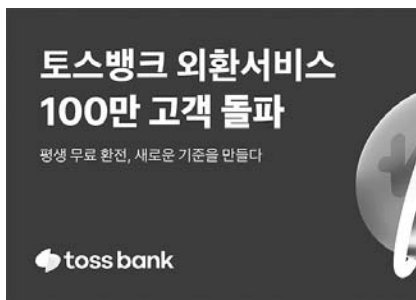
따라서, 대출 신청시 예상 조화하면 및 심사결과 화면에서 제시된 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변동)의 움직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 신청이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업무처리 지연 등으로 대출 실행일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실행일 기준금리가 설정돼 있다면 실행일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세대출을 받기 전에 실행일 기준금리를 확인하고 안내했다. 주택의 원소유

자(위탁자)가 주택을 실행일에 실행일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권이 실행일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주택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실행일 기준금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실행일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실행일 기준금리가 적용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한 실행일 기준금리 및 우선 수익자(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일 실행일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실행일 기준금리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입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실행 시점에 실행일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실행일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실행일 기준금리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입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대출실행 시점에 실행일 기준금리가 변동되는 경우 실행일 기준금리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입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토스뱅크에서 환전을 경험한 고객 연령대는 17세에서 100세까지 다양했다. 30대(28%)가 가장 많았고, 20대(27%), 40대(25%), 50대(13%), 60대 이상(4%)이 뒤를 이었다. 특히 90세 이상의 초고령 고객층에서도 환전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에서 바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를 외화통장과 연결한 고객 수는 전체의 85%에 달한다. 토스뱅크에서는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를 위해 새로 카드를 만들 필요 없이 국내에서 쓰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외화통장에 연동하면 된다. 특히 별도의 충전

한도가 있거나 미지원 통화는 결제가 되지 않는 충전식 선불카드와는 달리 토스뱅크 체크카드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해외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오프라인 결제가 이뤄진 국가는 일본, 광, 베트남, 미국, 프랑스 순으로 나타났다.

송두리 기자

토스뱅크, 외환서비스 이용 100만명 돌파

외화통장 출시 105일만 성과…누적 환전 거래액 5조8000억원

토스뱅크의 외환서비스 이용 고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토스뱅크는 ‘평생 무료 환전’을 선언한 외화통장 출시 105일 만에 계좌수 100만회를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약 9초에 1명이 토스뱅크 외화통장 고객이 된 셈이다. 토스뱅크는 지난 1월 18일 ‘세상의 돈을 자유롭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고객이 복잡하게 느낄 우대 환율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토스뱅크는 환전 수수료를 없애 고객들의 외화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 고객이

든 처음 토스뱅크에 가입한 고객이든 고객에게 차별이 없는 것은 물론 아무런 거래 조건 없이 100% 우대환율을 실현했다.

환전 데이터 분석결과 1월 출시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환전 수수료 없이 토스뱅크에서 이뤄진 누적 환전 거래량은 총 5조8000억원에 이른다. 고객들이 기존 금융사에서 환전했다고 가정하면 고객 1인당 평균 8만원의 환전 수수료 부담을 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생명, 여성질환 보장 ‘핑크케어’ 출시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장 담아…유방·생식기암 각각 최대 1억원 지급

NH농협생명이 여성전용 상품인 ‘핑크케어NH건강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여성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담은 상품으로 유방, 갑상선, 생식기 등에 특화해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부터 치료까지 보장한다.

주계약 가입금액 2000만원 가입 시 여성 주요암인 초기이외 유방암과 여성생식기암 진단 시 각각 최대 1억원을 지급한다.

또한 암 진단과정부터 수술까지 단계별로 보장한다. 진단과정에서 진단자금 지급부터 진단금 지급까지, 치료단계에서 수술자금부터 치료 후 재건수술자금까지 한 번에 보장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암 이외에도 여성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 또한 보장 가능하다. 갑상선기능저하증(무)을 통해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 후 치료시 치료료금급을, 특정갑상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이사(오른쪽 두 번째)와 배우자가 신상품 ‘핑크케어NH건강보험(무배당)’에 1호로 가입하는 모습.

선기능저하증 진단시에는 진단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자궁내막증진단특약(무)과 생식기케어치료특약(무)을 가입하면 자궁내막증진단 또는 자궁 및 난소 특정 수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질병케어와 함께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난임치료특약가입 시 난임치료를 위한 인공수정·체외수정 치료자금을 보장한다. 또한, 가입 1년 이후 출산시 납입면제서 소 신장을 통해 1년간 보험료를 납입면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경현 기자



노유미 NH투자증권 ESG본부 차장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마련된 팝업스토어 'N2, NIGHT'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증권사 가지 않은 길 도전하고 싶었다”



노유미 NH투자증권 ESG본부 차장

“증권사가 이런 것도 해요?”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불리는 서울 성수동에 등장한 NH투자증권의 팝업스토어 'N2, 나이트(NIGHT)'를 방문한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팝업스토어 그 어디에도 NH투자증권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팝업스토어 내에서 계좌 개설도, 상품 가입도 유도하지 않는다.

방문객들은 그저 공간을 즐기면 된다. 낮에는 야외 공간에 마련된 빈백과 해변에서 쉬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저녁에는 실내에 마련된 공간에서 명상을 하고 인문학 강의를 들을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N2, 나이트'를 통해 1차원적인 투자 개념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성장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2'를 활용하는 것이 어땠겠냐는 데 대해 거의 99%가 동의해주었다. 이를 시작으로 N2에 쉼표(.)를 붙여 캠페인 네임으로 정했다. 디지털화 작업을 마치면서 현재 'N2'에 대한 상표권도 신청한 상태다. 초기 단계에는 'N2'를 캠페인 네임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하되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인지도 제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팝업스토어 장소로 왜 성수동을 선택했나.

▲“투자, 문화가 되다”라는 슬로건과 이번 캠페인 콘셉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서는 2040세대에 소구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도 구매력 있는 타겟층이 많은 공간이어야 했는데 성수동이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또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었다.

‘N2, 나이트’ 오픈 열흘 만에 1만4000여명 방문
증권 간판 떼고 ‘저녁은 자기성장의 시간’ 메시지
투자→문화로 업그레이드, 발칙 시도에 MZ 호응
다음달 5일까지 운영 프로그램 대부분 예약 완료

‘N2, 나이트’는 오픈 열흘 만에 1만4000여명이 다녀갔다. 다음달 5일까지 운영되는데 이미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예약이 완료되는 등 인기가 뜨겁다. 이렇게 참신한 기획을 진행한 사람이 궁금해서 찾아가봤다. 노유미 NH투자증권 ESG본부 차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노 차장은 “증권사는 보수적이고 딱딱하다는 인식을 깨고 싶었다”고 했다.

-N2, NIGHT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캠페인 작업에 착수했는데 기존에 증권사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보고 싶었다. 모든 브랜드 캠페인이 그렇듯 이번 캠페인도 NH투자증권이라는 브랜드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렵다. NH투자증권이라는 사명이 소리 내서 읽으면 8음절(엔에이치투자증권)로 긴 편이라 기억하기 쉽지 않다. 또 NH가 들어가면 농협으로 인식하다보니 대부분 보수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인다. 긍정적인 회사 이미지를 남기자는 목적으로 이번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다.

-‘N2’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데 대한 내부 반응은.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을 포함해 임원진과 모든 사업부 대표, 실무자, 신입사원까지 50명가량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업계에서 NH투자증권을 줄여서 ‘엔투’로 부르는 데에 착안해 동음인 ‘N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함으로써 고객들이 보다 깊이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브랜드에 대한 공간을 더 많이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획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없었나.

▲증권사 자체가 경제적인 집단이다. 팝업스토어의 콘셉트와 운영 방향성에 대해 내부 진통이 있긴 했다. 계좌 개설한 사람만 입장 가능하거나 상품 가입을 유도해야 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다. 하지만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바뀔 것 같아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고 추진했다. 실제로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게시글을 올리고 있다. 인스타그램에는 #N2NIGHT라는 해시태그를 건 게시글이 500여 개가 넘게 올라와 있다. 주임식 광고는 보는 사람이 인위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진심을 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브랜딩 차원에서 이번 팝업스토어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의 브랜딩 목표는.

▲올해 처음 론칭한 ‘N2.’라는 캠페인 네임을 알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고객들이 ‘NH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사랑은 다른 회사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브랜딩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팝업스토어에 방문한 고객들이 나중에 투자를 하게 될 때 ‘아, NH투자증권에서 해아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도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김기령 기자 giryong@ekn.kr

외인, 국내 주식시장서 6개월 연속 ‘매수’

금융감독원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달 2조6000억원을 순매수해 6개월 연속 ‘사자’세를 이어갔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의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주식 2조6260억원을 순매수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3조

6490억원을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1조240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802조5000억원으로 전월 시가총액의 28.9%를 차지했다.

김기령 기자 giryong@ekn.kr

‘하이프 쇼크’ 엔터株…외인·기관 리턴 언제?

하이프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민회진 어도어 대표 간 갈등이 심화되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엔터테인먼트 종목(엔터주)서 이탈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경영진·기획자의 분쟁에 당분간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할 수 밖에 없다면서 2분기 이후 펼쳐질 모멘텀은 변함 없기 때문에 단기 부진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는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13.54% 하락했다. 연초 이후 하락폭은 15.94% 수준이다. 에스엠과 와이즈엔터테인먼트도 1월 2일부터 현재까지 각각 10.18%, 7.99% 떨어졌다.

올 들어 국내증시에서 20조2046억원의 순매수 중인 외국인투자자들도 엔터주에서는 이탈하고 있다. 외국인은 4월 19일부터 이날까지도 국내 증시에서 1조955억원을 순매수한 상태다. 이 기간 기관도 유가증권시장에서만 1조616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은 4월 19일부터 이날까지 하이브 주식을 각각 437억원, 1587억원 순매도 했다. 다른 엔터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기관은 4월 19일부터 이날까지 와이즈엔터테인먼트를 24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 JYP Ent. 주식 294억원

하이브發 ‘인적리스크’에 엔터주 ‘취청’
외국인 437억원, 기관 1587억원 순매도
하이브 연초 이후 하락률 15.94% 달해
증권가선 반등시기 하반기로 늦춰 잡아



민회진 어도어 대표

팔아치웠다. 다만, 같은 기간 JYP Ent. 주가는 6.6% 상승했다.

엔터주는 지난해 중국 내 앨범 매출 감소가 지속되면서 부진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비수기인 1분기 바닥을 찍고 성수기인 2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소속 아티스트의 신인 데뷔와 컴백 등이 미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2분기에는 대부분의 소속 아티스트의 컴

백이 집중되고, 6월부터는 방탄소년단의 제대도 앞둔면서 추가 반등 기대감이 나온 것이다.

엔터주의 반등시기는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엔터주에 가장 취약한 인적리스크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같은달 22일에는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를 착수했다고 밝혀면서 반등에 실패하기도 했다. 감사의 핵심은 경영권 탈취였다.

엔터주의 특성상 아티스트의 사생활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일례로 와이즈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말 박병의 전 멤버 승리가 연루된 ‘버닝썬 사건’으로 단 하루만에 시가총액이 1000억원 이상 날라가기도 했다. 작년에는 재계약 불발 이슈와 아티스트의 마약,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이슈 등이 문제가 되면서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기도 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영자·기획자 등

의 갈등은 투심을 당분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K팝의 성공의 이유로 꼽히는 멀티 레이블 시스템에 대한 허점이 드러남으로써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졌단 평가다.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엔터주의 호평은 멀티 레이블 시스템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으로 멀티 레이블의 확장성과 존재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피어났다”며 “그간 올해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엔터업종에 대한 적극적 비중확대를 권고해왔지만, 멀티레이블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는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업종의 불확실성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엔터주 반등시기를 2분기 이후인 하반기로 조정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이 K팝의 인기로 인해 하이브 발(發) 인적 리스크에서 대형 아티스트 컴백, 신인 데뷔로 돌아설 것이라 이유에서다. 이한욱 유인타증권 연구원은 “1분기를 지나 2분기부터 주가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것이라 의견은 유지한다”며 “이미 인적 리스크에 대한 것은 선반영됐다고 볼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추가 하방 압력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고, 하반기부터는 완만한 주가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외인·기관 사자에 코스피 한달만에 2740선 회복
코스피가 8일 치열한 보합권 공방 끝에 상승해 2740선을 되찾았다. 이날 코스피 증가는 전 거래일보다 10.69포인트(0.39%) 오른 2745.05로 집계됐다. 코스피 증가가 2740대에 오른 것은 지난 4월 4일(2,741.78) 이후 한 달여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952억원, 기관은 406억원을 순매수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4원 오른 1361.5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한은

코스닥 출사표 그리드위즈, 몸값 산정 PSR 방식 적용 ‘우려’

〈주가매출비율〉

코스닥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그리드위즈가 최대 3700억원대의 기업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익을 제외하고 매출과 주가를 활용한 가치산정법을 사용하면서 비교기업으로 제시한 곳들과 수익성이 큰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그리드위즈, 최대 3700억원 기업가치 산정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확인한 결과 그리드위즈는 오는 6월 3일부터 2일간 삼성증권의 주관으로 청약일정에 돌입한다. 희망공모가액은 최소 3만 4000원에서 최대 4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산정하면 최소 2702억원에서 최대 3719억원의 수치가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초 기대보다 높은 수준의 기업가치가 나왔다는 입장이다. 그리드위즈는 지난 2021년 시리즈C 투자에서 약 150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그리드위즈의 기업가치가 높게 산정된 배경에는 밸류에이션(가치산정) 방식에서 주가매출비율(PSR)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PSR 방식은 기업의 주가가 주당매출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직

이익 지표 고려 않고 매출 기준 주가만 보고 3700억원 가치 산정
PSR방식 활용한 상장사들 IPO 이후 ‘고평가 논란’에 주가 부진
비교군도 애매… 영업이익률, 그리드위즈 1%·비교기업 8~20%

자기기업의 기업가치 산정에 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당장은 사업 초기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쿠팡이 있다. 쿠팡은 지난 2021년 PSR 방식을 통해 기업가치를 산정하고 미국 시장에 상장한 뒤 한때 시가 총액이 100조원을 넘기도 했다.

◇PSR방식 적용 기업들, 증시 입성 이후 주가 부진

쿠팡의 성공적인 증시 입성을 전후해 많은 기업들이 PSR방식의 몸값 산정을 했다. 하지만 PSR 방식은 이익 지표가 반영되지 않아 쿠팡과 같은 성장을 보여주지 못한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주가 하락을 겪었다.

테슬라 특례상장 1호 ‘카페24’와 성장성 특례상장 1호 ‘셀리버리’가 모두 PSR 평가방법을 이용해 상장했지만 모두 공모가를 하회하는 주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 외에도 케이카와 포바이프, 블루엠펙 등이 PSR 방식을 활용해 상장했다가 모두 저조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

◇비교군 선정 애매…영업이익률 큰 차이

그리드위즈는 영업이익이 나긴 하지만 사업 구조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낮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률은 1.21%다.

그리드위즈가 기업가치를 산정하며 비교군으로 선정된 외국계 기업 세 곳은 모두 이보다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Alfen NV (AN), East on Corp (EC), Enphase Energy (E) 등 외국계 기업으로 각각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AN 8.30%, EC 17.22%, E 20.14% 등을 기록하고 있다. 모두 그리드위즈 대비 크게 높다.

해당 비교기업의 현재 주가와 시가총액에는 수익성 요소도 포함된 것이지만 그리드위즈는 해당 기업을 PSR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이를 계산에서 제외한 셈이다.

그리드위즈의 기업가치 산정에는 평가액 대비 할인율이 43.11%~51.65% 적용됐지만 비교군과 영업이익률 차이를 생각하면 할인율이 크다고 보긴 힘들다.

이에 대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상장하는 기업들이 최대한 기업가치를 높게 받은 뒤 상장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며 “좀 더 보수적인 기업가치 산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국방핵심소재 78.9% 수입산…해외 의존도 심각

산연, 인프라 구축·거버넌스 강화·제도절차 정립 등 솔루션 촉구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 내 한국산 무기 체계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으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022년 기준 국방핵심소재 10종의 조달액 8473억원 중 78.9%가 수입산 도입에 쓰인 것으로 집계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내열합금과 마그네슘합금은 전량이 수입됐다. 타이타늄합금과 니켈·코발트의 수입 의존도는 99.8%, 알루미늄합금도 94.9%로 나타났다.

비금속소재인 복합소재와 세라믹의 해외 의존도도 각각 47.4%, 51.3%에 달했다.

국방반도체 등 주요 방산 부품과 핵심소재 분야에 대한 공급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유럽과 중동 지역 분쟁 △대형 자연재해 △전염병 공급망 디커플링 심화를 비롯한 영향이다.

원자재값 상승과 리드타임 증가 등 글로벌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나, 기업 차원의 솔루션 마련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공급기업 다변화(10.5%), 자체 비축물량 확대(7.9%), 기술혁신을 통한 대체·지갑(5.3%), 수입국 다변화 및 해외 조달원의 국내전환(2.6%)을 추진하는

나광호 기자

등 대응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방산소재가 부품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된 탓에 독자적 국산화가 어렵고 해외 수입소재 가공시 이를 국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산화 유인이 거의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거버넌스 및 협력체계 강화·공급망 강화·제도와 절차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여기에는 국방혁신소재 지정제도, 국방소재 특화센터, 민간겸용 핵심소재 선행 개발사업, 국방소재 통계 및 공급망 조사, 우방국과의 협력 확대, 정부의 비축원자재 제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연구위원은 “방산부품과 동력 수준으로 방산소재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발-생산-시험평가-인증 등 전주기 차원의 국방핵심소재 자립화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며 “공급망 취약점을 식별하고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네시스, ‘상품성 개선’ GV70 부분변경 모델 출시

헤드램프에 선택 점등 가능 ‘MLA’ 기술 탑재…‘스포츠 패키지’도 운영

제네시스가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GV70’의 부분변경 모델을 8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제네시스는 GV70이 △브랜드 디자인 철학을 기반으로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더해 한층 세련된 내외장 디자인 △더욱 부드러운 승차감과 향상된 집중성으로 강화된 주행감성 △편안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는 감성·편의사양 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신차 전면부는 크레스트 그릴을 이중 메시 구조로 다듬었다.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디자인이 반영된 헤드램프에는 MLA(Micro Lens Array) 기술을 탑재했다. MLA는 다수 배열된 작은 크기의 램프를 통해 우수한 광량 확보 및 램프별 세밀한 선택적 점등이 가능한 최첨단 기술이다. 후면부는 기존 범퍼에 위치했던 방향지시등을 리어 콤비램프와 일체화했다.

GV70의 실내는 한국적인 ‘여백의 미’와 타원형 요소 중심의 독특한 인테리어 테마를 계승했다. 제네시스는 GV70에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합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터치 타입 공조 조작계를 탑재했다.

또 오디오트림 상단부에서 센터페시아로 이어지는 무드 램프 △크리스탈 디자인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SBW) △제네시스 신규 엠블럼이 부착된 혼 커버 △투톤 색상의 신규 스티어링 휠 △정교한 스티치 디테일 등을 넣었다.

GV70의 외장 색상은 신규 색상인 ‘세레스 블루(유광·무광)’를 포함해 총 12종으로 운영된다. 내장 색상은 5종의 기본 색상과 4종의 스포츠 패키지 전용 색상이 제공된다.

제네시스는 GV70에 역동적인 내외장 요소를 더해 스포티한 이미지를 극대화한 ‘GV70 스포츠 패키지’도 운영한다.

제네시스는 GV70 스포츠 패키지의 전면부에 ‘더블 레이어드 지-매트릭스’ 패턴의 크레스트 그릴과 확장된 공기 흡입구를 적용했다. 새로운 디자인의 두 종류 휠도 장착했다. 후면부는 다크 크롬이 적용된 리어 디퓨저와 머플러 팁을 배치해 차별화를 꾀했다.

제네시스는 GV70을 2.5 터보 가솔린과 3.5 터보 가솔린 등 2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한다. 고객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기존 AWD 모델로만 운영했던 3.5 터보 가솔린 엔진에 2WD 모델을 추가해 모든 엔진 라인업에서 2WD, AWD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GV70의 판매 가격은 △2.5 가솔린 터보 5380만원 △3.5 가솔린 터보 5930만원이다. GV70 스포츠 패키지는 △2.5 가솔린 터보 5695만원 △3.5 가솔린 터보 6265만원이다. [여현우 기자 yes@ekn.kr](mailto:yes@ekn.kr)

애경케미칼, SIB용 음극소재 하드카본 개발

애경케미칼이 나트륨이온배터리(SIB)용 음극소재로 쓰이는 고성능 하드카본을 개발했다.

애경케미칼은 관련 연구조직을 신설·운영했고, 양산 설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등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하드카본의 방전용량과 효율은 각각 300mAh/g·90%를 초과한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다.

SIB는 리튬이온배터리(LIB) 대비 경제성이 높고 친환경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차세대 제품으로 불린다.

2027년 글로벌 SIB 시장이 5억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각국 배터리 제조사들도 SIB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나광호 기자



애경케미칼 하드카본 음극소재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시제품 생산까지 성공하면서 고객사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설비 증설 등 양산 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가 상승’ 한숨 돌린 정유업계…횡재세 ‘노심초사’

SK이노·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 1분기 영업실적 향상

야당, ‘초과이윤세’ 횡재세 논의

“산업구조 고려 안한 법안” 우려

국제유가 상승으로 송유미 트인 정유업계가 다시 찾아가는 ‘횡재세’ 트라우마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제가 적자를 벗어나는데 정처권에서 이를 횡재로 규정하며 세금을 더 걷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유업계는 “적자날 때 손실보전은 없고 잘나가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내 기업은 외국에서 원유가 나는 타국가 기업과 수익 규모와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계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SK이노베이션 석유사업부문은 1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115.1% 증가한 591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3052억원으로 동기간 대비 17.8% 늘었다. 에스오일은 전년 동기대비 11.9% 감소한 4541억원을 기록했지만 직전 분기 적자흐름을 끊어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업계의 이러한 실적은 ‘유가 상승’에



4월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게시된 모습

따른 재고관련 이익과 정제마진 개선이 주효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오르면서 정제마진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간만에 달성한 흑자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2년 전 업계를 떨게 했던 횡재세 도입이 최근 다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초과이윤세’라고 불리는 횡재세는 기업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횡재세는 정유사들이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한 2022년부터 언급됐다. 지난해엔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여러 반대에 막혔다. 그러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언급하면서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횡재세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인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며 “정부는 막연히 희망 주문만 외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유가로 국민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유업계가 많은 이익을 얻자 세금을 더 거둬서 민심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반면 정유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내내 적자를 기록하다 이제가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과를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또 업계의 특성상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횡재세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자국에서 원유가 나는 타국가들과 달리 국내 정유업계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제품으로 마진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이익률이 크지 않다.

사우디 기업의 경우 유가가 오르면 원유부터 정제유까지 모든 부분에서 수익을 얻지만 국내 업체는 원유값은 그대로 지불하고 정제마진만 얻기 때문이다.이에 해외 메이저 기업과 국내업계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정유업계의 약 20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8%로 제조업 평균 6.5%에도 한참 못미치고 있다.

이처럼 정유업계의 수익구조는 업황이 좋을 때 번 돈으로 불황의 시기에 적자를 매꾸어 나가는 방식인데 잠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횡재세는 전형적인 포폴리즘 정책으로 정유업계의 산업구조와 자본시장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이 더 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천우 기자 lcw@ekn.kr

상사업계, 에너지·광물 등 신사업으로 위기 탈출 노린다

태양광 등 에너지포트폴리오 강화

니켈 등 핵심 광물 사업도 확대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지붕에 2.2MW급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포항 양극재 공장과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에도 태양광 발전 설치를 검토하는 등 그룹의 ESG 경영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LX인터내셔널은 매출 3조7761억원·영업이익 1107억원을 시현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1.5% 축소됐지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41% 늘었다.

1330억원을 들여 올해 초 인수한 인도네시아 AKP 니켈 광산이 실적 향상으로 이어졌다. 이 광산은 전기차 700만대 분량의 광물을 채굴 가능한 곳으로 평가된다.

니켈 제련단지 및 항만을 비롯한 인프라가 인접한 것도 강점이다. LX인터내셔널은 생산량 전량에 대한 인수 권한을 갖고 있다. 유조선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팜 사업도 가격 강세로 양호한 실적을



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 가스전

거둬들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매출 2906억원·영업이익 850억원으로 집계됐다. 원자재값 하락으로 매출이 19.4% 하락했지만, 미국 태양광 매각 수익 등에 힘입어 영업이익률은 2.0%에서 2.9%로 높아졌다.

삼성물산은 15.4GW 수준인 태양광 파이프라인을 올해말 20GW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 EPC 사업도 태양광 사업과 연계한다.

암모니아 등 수소사업, 배터리 리사이클링,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신사업 투자도 단행하고 있다.

산업부,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IRA 대응방안 논의

범정부 차원 美 FEOC 유예 요청

실리콘 등 흑연 대체 기술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최종 규정의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8일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및 해외우려집단(FEOC)에 대한 가이던스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흑연의 FEOC 규정 적용에 대한 2년간 유예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미 협의를 적극 추진해 온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흑연의 FEOC 규정은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 업계의 북미 진출 확대에서 가장 큰 불확실한 요인으로 꼽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실·산업부·외교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미국 측과 관련 규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 규정에서는 완성차업계가 2027년 이후 흑연 공급망 다변화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위한 핵심광물 비중 산정시 정확한 부가가치도 계산해야 한다.

정부와 업계는 우리 배터리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에 맞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게 흑연 등 핵심광물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민간합동 배터리алья인스를 통해 점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업계의 공급망 자립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된 국내 투자에 올해 9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금융·세제 및 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비롯한 정부간 협력체들을 통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광물 확보를 위한 기업의 활동을 도울 계획이다.

리튬메탈 배터리 및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이같은 과정에서 배터리-자동차 업계간 그리고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나광호 기자

대한전선, 美 송·배전 전시회서 제품 30종 소개

노후 전력망 교체 솔루션·HVDC 시스템 등…북미 시장 공략 박차

대한전선이 미국 최대 규모의 송·배전 전시회에 참가해 다양한 전략 제품을 선보였다.

대한전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열린 ‘IEEE PES T&D’에 참가했다고 8일 밝혔다. ‘IEEE PES T&D’는 2년마다 개최되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력 산업 전시회로, 전 세계 660여개 전력기자재 업체들이 참여해 제품과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전선은 약 25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하고 △노후 전력망 교체 솔루션 △해상풍력 솔루션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시스템 △통신 케이블 솔루션 등의 테마로 구분해 30여종의 다양한 전략 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노후 전력망 교체 솔루션을 부스 전면에 배치했다. 노후 전력망 교체 솔루션은 기존에 매설돼 있는 관로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노후된 케이블을 송전 용량이 높은 케이블로 교체하는 기술이다. 미국의 지중 송전선로는 절반 이상이 40년을 경과한 상태로 노후 전력망의 교체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큰 호응을 받았다.

해상풍력 솔루션 파트에서는 국내외 프로젝트에 공급한 다양한 해상 케이블과 포설선(CLV)을 소개하고, 공장의 단계별 투자 및 생산 계획을 공개했다. 이



대한전선 IEEE 부스 전경.

외에도 국제 공인 인증을 획득한 525kV 전압형 HVDC 케이블과 500kV 전류형 HVDC 케이블, 초고압 케이블 솔루션과 통신 케이블 솔루션 등을 전시하며 기술 역량을 강조했다.

송중진 부회장은 직접 전시회 현장에 방문해 미국 법인장 등 임직원과 함께 북미 지역의 주요 전력청 및 거래처 관계자들을 만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최근 바이든 정부가 향후 5년간 미국 내에서 16만km 규모의 송전선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전력망 교체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며 “노후 전력망 솔루션에 대한 마케팅에 집중해 미국 내 전력 및 케이블 분야의 주요 공급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민 기자 kevinpark@ekn.kr

‘사면초가’ 알뜰폰업계 “정부 통신정책 일관성 없어…중소사업자 위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금융권의 시장 진출 등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알뜰폰(MVNO) 업계가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통신 정책이 중소 사업자들을 고사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계 현안과 위기의식을 토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자들은 통신 법안 개정 요구에도 진흥책이 갖춰지지 않아 중소 사업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중저가 요금제 출시와 단통법 폐지, 전환지원금 등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에는 통신 시장 과점 구도를 깰 ‘메기’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스테이지엑스를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들이 정부가 기존에 내세웠던 알뜰폰 육성 기조와 충돌된다는 지적이 적잖게 제기돼 왔다. 알뜰

알뜰통신사업자협회 기자간담회 개최…현안·위기의식 토로
‘5G중저가 요금제·단통법 폐지·전환지원금’ 알뜰폰 육성기조와 충돌
망 도매대가 산정 방식 우려…“저렴한 요금제 낼 수 있게 지원”

폰 업계는 ‘0원 요금제’와 같은 중저가 요금을 앞세워 가입자를 확보해 왔었는데, 가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지며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은 “정부가 통신 시장에 개입해 가계통신비를 내리려면 규제책을 써서 작동되도록 해야 하며, 규제하지 않으려면 시장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올해까지 업계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보고, 정책이 계속 왜곡된다면 내년 2월 협회장직을 사직하겠다”고 강조했다.

알뜰폰 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망 도매대가 가격 산정 방식이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리는 비용을 뜻한다.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가 상설화됐다. 이와 함께 알뜰폰 사업자와 통신 3사가 개별 협상을 진행한 후, 결과에 따라 공정 경쟁이 저하됐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개입하는 사후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선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3사와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

업계는 알뜰폰 도매대가 가격 산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로 사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밀리면서 도매대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플랫폼·금융권의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고명수 스마텔 대표



박장희 크사람커넥트 모바일사업부 전무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통신 3사 자회사의 경우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유지하고 도매대가 이하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상생에 나서왔다”며 “금융권은 도매대가 90%라는 금융위의 허용 범위를 넘어 70~80%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장희 크사람커넥트 모바일사업부 전무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제한 데이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도매대가가 인하되지 않았다”며 “사업자들이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낼 수 있

도록 정부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무는 이어 “데이터 대량 구매 시 단가를 낮춰주는 데이터 선구매 제도에서 10테라바이트(TB) 구매 기준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은 3% 내외”라며 “기존 월 단위 구매 제도를 연 단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통신사들과 협의해준다면 소비자들도 눈높이에 맞는 요금제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의 번호이동 수수료 부과와 전파사용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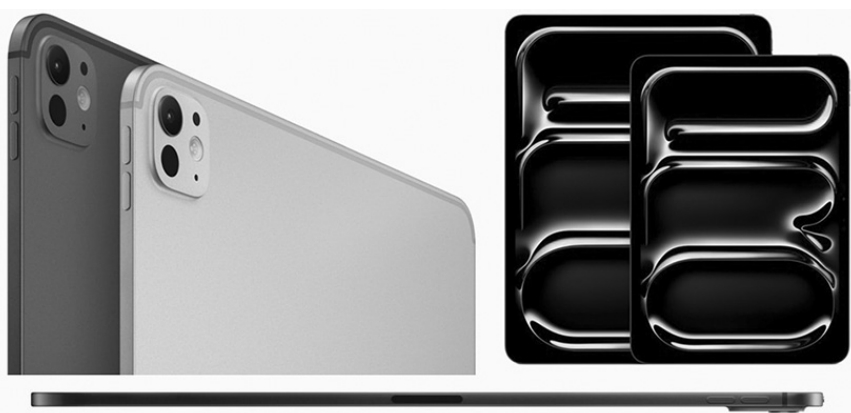
납부 면제 압박 등 이슈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광필 인스코비 상무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아직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 도매대가 등문제로 수익성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생태계에 대해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스마텔, 인스코비, 크사람커넥트, 유니컬즈 등 알뜰폰 업체 16곳이 회원사로 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더 얇게 더 빠르게’…애플 “M4 탑재 아이패드로 시장 확대”

M4, M2 대비 CPU 성능 1.5배 ↑
두께 5.3mm…무게도 107g 감량
음성 문자 변화·실시간 자막 등 실험



애플 아이패드 프로 13 11인치·13인치 모델

애플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입각해 자체 개발한 신형 칩 ‘M4’를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 13’과 M2를 품은 ‘아이패드 에어’를 공개했다. 애플은 이 시리즈를 앞세워 글로벌 태블릿 PC 시장 점유율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애플은 전날 M4 칩을 내장한 ‘아이패드 프로 13’을 출시했다. 이는 전작 이후 약 18개월 만에 나온 제품이다.

아이패드 프로 13은 최대 4개의 성능 코어와 6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된 최대 10코어 중앙 처리 장치(CPU)를 탑재한 M4를 품었다. M4는 이전 세대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M2 대비 최대 1.5배 향상된 속도의 CPU 성능을 제공한다. 로직 프로에서 복잡한 오케스트라 음악 파일을 작업하거나 루마 퓨전에서 4K 동영상에 고난도 이펙트를 삽입하는 등 M4는 전문 워크 플로우 전반에 걸쳐 향상된 성능을 낸다는 것이 애플 측 설명이다.

또 M4의 초고속 ‘뉴럴 엔진’은 초당 38조회에 달하는 연산 처리 능력을 갖췄다.

이는 A11 바이오닉 칩의 뉴럴 엔진 대비 60배 빠른 속도다. CPU의 차세대 머신러닝(ML) 가속기와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GPU), 확장된 대역폭의 통합 메모리로 무장한 뉴럴 엔진은 M4가 고성능 AI용 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아이패드 13 프로로 음성 내용을 곧바로 문자로 바꿔주는 실시간 자막과 영상·사진 내 피사체 식별 시각 정보 찾아보기 등 아이패드 운영 체제(OS) 자체 AI 기능을 포함한 제반 작업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 관계자는 “‘파인얼 컷 프로’ 앱에 선택한 번으로 4K 동영상 속 배경과 피사체를 분리하는 작업이나 ‘스테퍼 페

드’로 피아노 연주를 듣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악보를 자동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현존 최고의 신경망 처리 장치(NPU)보다 뛰어난 성능을 내는 만큼 추론 워크로드도 △앱 메모리 △앱 반응 속도 △배터리 사용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아이패드 프로 13의 슬로건으로 ‘불가능이란 없다(Thinpossible)’을 제시했다. 아이패드 프로 13은 11인치와 13인치 2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두께가 5.3mm, 5.1mm다. 무게는 450g, 579g이다. 13인치 모델은 전작 대비 107g 가벼워졌다.

애플 측은 100% 재활용 알루미늄을 활용해 제작했고 색상은 실버·스페이스

블랙 2가지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또 SD R·HDR 콘텐츠에 대해 최대 1000니트의 밝기를 제공한다.

조니 스루니 애플 하드웨어 기술 담당 수석 부사장은 “M4의 전력 효율성과 새로운 디스플레이 엔진 덕분에 아이패드 프로 13의 얇은 디자인과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디스플레이가 실현됐다”며 “M4는 AI를 활용하는 최신 앱에 최적화된 칩으로 자리잡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애플은 이날 M2 칩을 채택한 아이패드 에어 11·13인치 모델도 내놨다. 애플은 이번 신제품을 통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갈 방침이다.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와 ‘테크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플 아이패드 출하량은 5403만8000대로 작년 대비 11% 줄었다. 태블릿 PC 시장이 코로나 19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로 2021년 1억8000만대 수준으로 성장한 후 교체 수요 감소 등으로 지난해 1억4000만대로 줄어든 탓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40%로 1위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는 태블릿 PC 교체 주기 도래에 따라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삼성전자, 작년 OLED 모니터 시장 점유율 1위

게이밍 모니터는 5년 연속 정상

삼성전자는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 1년만에 글로벌 판매 1위를 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시장 조사 업체 IDC는 삼성전자가 2023년 글로벌 OLED 모니터 시장에서 금액 기준 34.7%, 수량 기준 28.3%를 기록하며 1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2023년 글로벌 게이밍 모니터 시장에서도 금액 기준 시장 점유율 20.8%를 차지하며, 2019년 이후 5년 연속 게이밍 모니터 업계 1위를 지켰다.

삼성전자는 2022년 10월 첫 OLED 모니터인 34형 오디세이 ‘OLED G8 (G85SB)’ 출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49형 오디세이 ‘OLED G9 (G95SC)’을 내세워 OLED 모니터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 전시회 ‘CES 2024’에서 OLED 모니터 신제품을 대거 선보이며 라인업을 확대했다.

삼성전자는 32형4K 해상도 16:9 화면비 최대 240Hz 주사율?0.03ms(GTG 기준) 응답 속도의 ‘오디세이 OLED G8 (G80SD)’와 27형 QHD 해상도 16:9 화면비 최대 360Hz 주사율 0.03ms(GTG 기준) 응답 속도의 ‘오디세이 OLED G6 (G60SD)’, 기존 모델에 신규 기능을 탑재

한 2024년형 ‘오디세이 OLED G9 (G95SD)’ 등을 올해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OLED 모니터는 글로벌 IT 매체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복미 IT 매체 PC월드에는 “오디세이 OLED G8 (G80SD)은 이번 CES에서 가장 중요한 모니터”라며 “높은 명암비와 풍부한 색상을 묘사하는 디스플레이 기술력과 인체 공학적 디자인”이라고 극찬했다.

디지털 트렌드는 “AI 프로세서가 탑재된 OLED G8 (G80SD)은 콘텐츠에 따라 자동으로 화질을 설정해준다”며 “현재까지 CES에서 본 AI 기능 중에 제일 훌륭했다”고 호평했다.

또 오디세이 OLED G9 (G95D)은 CES 2024에서 컴퓨터 주변 기기 부문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훈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OLED 모니터 시장 진출 1년 만에 글로벌 1위 달성은 게이머들이 뛰어난 화질과 압도적인 게이밍 성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술 혁신을 거듭한 결과”라며 “삼성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가 게이머들에게 최고의 게이밍 기기로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할 일이
태산인데...
문서세단은
어느 세월에?
걱정마!
3초면 끝!

자동급지세단기
AutoMax™ 550C

펠로우즈 AutoMax™ 자동급지세단기 3초 만에 550장을 손쉽게 세단하세요!

펠로우즈 AutoMax™ 550C 자동급지세단기는 일일이 나누어 투입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최대 550장까지 세단합니다. 열고, 넣고, 누르면 끝! 문서 세단에 필요한 시간은 3초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세단기 앞에 서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자동급지 기능으로 시간 절약 스마트시스템으로 보안성 강화 잼가드 시스템으로 종이 걸림 최소화
자동슬립 모드로 에너지 절약 CD/신용카드 세단가능 1~2장은 수동세단으로 간단히

공식쇼핑몰에서 세단기 구매하고 혜택 받자!

혜택 1 | 배송비 무료, 반품 배송비도 무료 혜택 2 | 이벤트 기간 내 구매하면 적립금이 2배!
혜택 3 | 세단기 전용 오일, 폐지함 비닐백 증정 (350C, 550C 모델에 한함) 혜택 4 | 스마트폰 링 홀더 증정 (한정수량, 소진 시 마감)

※자세한 사항은 쇼핑몰에서 확인해주세요 (mall.fellowes.co.kr)

(주)펠로우즈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63 헤인빌딩 4층 / Tel.02-3462-2884 / Email. webmaster@fellowes.co.kr / www.fellowes.co.kr

Fellowes
WORK BETTER™

저가커피에 입지 뺏긴 이디야 ‘전열 재정비’

메가커피·컴포즈커피 등 저가형 커피 업체들의 약진에 밀려 ‘중저가 커피’ 경쟁력 약화에 따른 실적 하락을 겪고 있는 이디야커피가 조직 및 인적 개편 등 전열 정비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인 각자대표체제에서 2명의 대표가 물러나고 창업주인 문창기 회장 단독대표체제로 바뀐 지 3개월만에 다시 외부 대표를 영입해 각자대표체제로 복귀한데 이어 오너2세인 문 회장의 장남 문승환 경영전략본부장의 사내이사 선임으로 전문경영과 경영승계라는 과제를 동시에 풀어나가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디야커피는 문창기 회장의 장남인 문승환 경영전략본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 1993년생인 문 본부장은 유력한 차기 후계자로 지목되는 인물로, 현재 이디야커피 지분의 6%를 보유하고 있다.

문 본부장은 지난 2019년~2020년 2년 동안 이디야커피에서 평가원으로 경영 수업을 받은 뒤 컨설팅업체 BCG, AT커니, 딜로이트 컨설팅 등에서 전략 구상 등 실무를 경험했다. 지난해 말부터 진정으로 복귀해 경영전략본부장으로 근무해왔는데, 이번에 이사회 구성원으로 합류하며 수뇌부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문 본부장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직접 경영까지 나서면서 신사업·해외사업 등 주요 사업 확대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 평가가 뒤따른다. 특히, 문 본부장이 주도하는 경영전략본부는 해외사업팀·전략기획팀 등 굵직한 부서가 모인 핵심 사업

중저가 경쟁력 약화로 작년 외형·수익성 하락 ‘고전’
창업2세 이사 선임, 유통 베테랑 대표 영입 조직개편
해외·가맹점 수익 강화 주력...“연내 브랜드 리뉴얼”



문창기 이디야커피 대표이사 회장

본부로 알려졌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빠른 경영권 승계보다 문 본부장의 업무 경험·전략 컨설팅 경력을 살려 가맹점 수익개선, 신사업 발굴, 글로벌 기업으로의 도약 등 경영 쇄신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문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상황으로, 앞으로도 이디야커피 전 방면에서 경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이디야커피는 지난달 1일 외부 출신 신입 대표를 영입하며 다시 각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디야커피 사옥

자대표 체제로 전환해 눈길을 끈다. 앞서 이디야커피는 2022년 문 회장을 포함해 3인 대표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과 12월 이석장·권익범 전 대표가 잇따라 자리에 물러나면서 문 회장 단독 대표 체제로 돌아갔다.

신임 수장 자리에 오른 김상수 대표는 롯데백화점 입사 후 마케팅·상품 등 사업 부서를 거쳐 29년 동안 유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유통통으로 꼽힌다. 특히, 롯데마트 신규사업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유통·신규 사업 전략 수

립과 실행을 이끈 인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디야커피가 저조한 성적으로 애플 먹는 만큼 인적 쇄신을 통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가 커피업체 공세로 이디야커피는 기존 중저가 커피 브랜드의 이미지가 얼어지면서 그 여파가 실적에도 드러나고 있다고 줄곧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이디야커피 매출은 2755억원으로 전년보다 0.8% 줄었고, 영업이익은 18.1% 감소한 82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이 100억원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에 경쟁사인 ‘메가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의 지난해 매출은 36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0.7% 늘었고, 영업이익도 124.1% 늘어난 693억원으로 집계됐다. 컴포즈커피 역시 매출 889억원, 영업이익 367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20.5%, 47% 증가했다.

위기감이 높아진 만큼 이디야커피는 향후 문 본부장과 김 대표 주도로 실적 개선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 초 신년사를 통해 문 회장은 ‘해외진출 본격화’, ‘고객가치 중심 브랜드 리뉴얼’, ‘가맹점 매출 신장 총력’ 등의 경영 방침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디야커피 관계자는 “연내 전면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추진해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을 확대해 내실을 다지고, 가맹점주들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가맹점 경쟁력·상생경영 강화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나 기자 inahohc@ekn.kr

동국제약 ‘매출 1조’ 뷰티·헬스에 달렸다

‘마데카 크림’ 성공에 삼푸·디바이스 전방위 확장
헬스케어 실적 증가 힘입어 올해 8천억 돌파 예상
수익 개선 신성장동력 육성...이르면 내년 목표달성

동국제약이 의약품 노하우를 적용한 고기능성 화장품 등 뷰티·헬스케어 강점을 최대한 살려 매출 1조원 달성에 도전한다.

뷰티·헬스케어 분야는 치열한 경쟁해 광고마케팅 지출도 크지만 ‘매출 1조원 제약사’ 타이틀 경쟁 중인 동국제약에게 가장 믿을만한 카드로 보인다.

8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최근 주름개선 및 안티에이징 화장품 ‘마데카 크림’의 주성분을 활용한 입술 케어 제품 ‘마데카 모이스처 립 에센스’와 ‘마데카 립 플럼퍼’ 2종을 출시했다.

셀렐라아시아타가 (병품) 정량추출물 ‘TECA’를 주성분으로 하는 립케어 제품으로, 동국제약은 ‘마데카’ 이름을 앞세워 다양한 뷰티 제품을 공격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마데카 크림은 상처치료제 마데카솔의 주성분 TECA를 활용한 동국제약의 첫 화장품으로, 2015년 출시 이후 큰 호응을 얻으며 연매출 2000억원 가까운 효과 제품으로 자리잡았다.

마데카 크림 성공에 고무된 동국제약은 ‘마데카 바디워시’, 마데카 헤어샴푸, ‘비건 자외선 차단제’ 마데카 더마 실드 세이프, ‘남성전용 화장품’ 마데카 욕모 ‘등을 잇따라 출시해 왔다.

지난해 초 출시한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은 미세집중초음파로 피부 탄력을 관리하는 디바이스로 지난해 매출 200억원을 올린데 이어 올해에는 매출 500억원이 전망된다.

마데카 제품군을 포함한 동국제약 헬스케어사업부의 매출비중은 2022년 29.9%에서 지난해 31.9%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동국제약의 전체 매출은 2022년 6166억원으로 사상 이래 처음 6000억원을 돌파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7310억원으로 처음 7000억원을 돌파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동국제약 헬스케어 사업부의 매출은 2740억원으로 매출비중이 33.9%까지 높아지고 전체 매출은



동국제약 사옥 전경

처음 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전문의약품 매출은 2020억원, 일반의약품 매출은 153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동국제약의 판매관리비는 3272억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은 669억원으로 전년 대비 9.6% 줄었다.

경쟁이 치열한 뷰티헬스케어 분야 매출 성장을 위해 판관비를 확대한 것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동국제약은 뷰티헬스케어 제품군 확대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령, HK이노엔, JW중외제약 등과 함께 벌이고 있는 ‘매출 1조원 제약사’ 타이틀 경쟁에 뒤처질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국내 제약업계에서 ‘매출 1조원 제약사’가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동국제약이 이르면 내년 또는 2026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면서 그 해법을 뷰티헬스케어 사업에서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철환 기자 kch0054@ekn.kr

신세계, 백화점 날고 자회사 뛰고 ‘1분기 好好~’

연결매출 2조 8187억, 영업이익 1630억 ‘동반 상승’
백화점 매출 1조8천억대 7.9%↑ 1분기 역대최대
신세계가사·라이브쇼핑·센트럴시티 실적 측면지원

신세계가 백화점과 주요 자회사들의 성장세에 힘입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신세계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총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2조 8187억원, 영업이익은 7% 증가한 1630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공시했다.

사업부문별로 살펴보면, 백화점 사업의 경우 1분기 총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9% 성장한 1조 8014억원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였던 작년 1분기 총매출(1조 6695억원)을 1년 만에 넘어섬에 1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새로 썼다.

영업이익(1137억원) 광주·대구·대전 신세계 별도법인 단순합산) 역시 전년 대비 3.1% 늘었다.

이는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소비 심리가 다소 위축된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본업 경쟁력을 다진 결과로 분석된다. 신세계백화점은 앞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리뉴얼(1월)과 국내외 최고의 디지털트를 염신해 모든 강남점 스위트파크 오픈(2월)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앞세워 호응을 얻

었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강남점 식품관과 타인스퀘어 패션관 등 리뉴얼을 통한 공간 혁신을 이어가는 동시에 모바일 앱 활성화를 통한 온·오프라인 시너지에 역량을 집중하며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세계가사와 라이브쇼핑 등 연결 자회사들도 외형 성장과 내실을 모두 챙기며 올해 연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높였다.

먼저, 신세계가사는 매출액 685억원(+30%), 영업이익 10억원(+98억원)을 기록하며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흑자 전환을 이뤘다.

수면 전문 브랜드 ‘마데라소’와 베스트셀러 소파 ‘캄포’ 등 메가히트 상품에 힘입어 매출액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신세계가사는 물류 운영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사업 구조가 안정화되며 올해 연간 흑자에 대한 기대도 높였다.

신세계라이브쇼핑 역시 블루밍, 에디티드, 엘라코닉 등 패션PB(자체 브랜드)의 호조로 매출액 782억원(+16.7%)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미지

과 영업이익 56억원(+62억원)이 모두 크게 성장했다.

신세계디에프(면세점)의 경우, 매출액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4.867억원(-4.8%)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인천공항 트래픽 증가와 순차적 매장 오픈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센트럴시티는 영랑호 리조트 영업 양수 효과와 임대 수익의 증가로 매출액 889억원(+5.5%)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262억원(+44억원)을 달성했다.

신세계인터내셔널은 매출액 3094억원(-0.9%), 영업이익은 112억원(+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코스메틱 사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신세계인터내셔널 코스메틱부

문은 올 1분기 매출 1043억원, 영업이익 65억원을 기록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이뤘다. 자체 화장품과 수입 화장품이 모두 호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고기능 스킨케어 브랜드 ‘연작’(+32.6%), 럭셔리 뷰티 브랜드 ‘뽀아레’(+63.1%), 하이엔드 스킨케어 브랜드 ‘스위스퍼펙트’ 등 자체 브랜드가 호실적을 이끌었다.

신세계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업황과 치열한 커머스 경쟁 속에서도 백화점 역대 1분기 최대 매출과 연결 회사들의 고른 성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백화점의 콘텐츠 혁신과 자회사들의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은 기자 pr3028@ekn.kr

명동 롯데면세점에 中단체관광객 4천명 ‘복적’…일상회복 후 처음

포상휴가 크루즈 단체여행객 방문
쇼핑 70%가 고가품 ‘높은 구매력’

롯데면세점은 지난 7일 서울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에 중국 인센티브(포상휴가) 단체관광객 4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8일 밝혔다.

엔데믹 이후 4000여 명 이상의 대규모 중국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롯데면세점은 전했다.

이번에 방문한 단체 관광객은 대만계 화장품 기업 임직원들로 회사로부터 포상휴가를 부여받았다. 중국 상하이에서 출항한 크루즈선 스펙트럼오브더씨(Spectrum of the Seas) 호를 타고 7일 오전 입국했다. 2019년 건조된 이 크루즈는 승객 약 5600명, 승무원 약 1500명 등 모두 70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다.

롯데면세점 쇼핑 코스를 비롯해 경희

궁, 북촌한옥마을, 재래시장 등 수도권 및 인천의 주요 관광명소를 둘러본 후 당일 저녁 출국했다.

특히, 중국 인센티브 단체관광객들은 7일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을 방문해 면세 쇼핑 일정을 즐겼다.

롯데면세점의 구매 데이터 분석 결과, 럭셔리 뷰티크와 시계·보석 등 고가 상품 구매 비중이 약 70%를 차지했고, 수입 화장품과 식품류도 크게 인기를 끌었다.

관광객 연령대가 평균 30~40대로 비교적 젊었고, 포상휴가로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특성상 구매력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여세를 몰아 오는 25일 열리는 ‘제2회 1883 인천매강파티’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손잡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인천매강파티를 통해 중국·대만·홍콩 등 10개 국가의 외국인 관광객 1만여 명이 한국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중국 인센티브 단체관광객들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을 찾아 쇼핑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엔데믹 이후 유커 회복 속도가 더뎠던 상황에서 4000명 규모의 대규모 단체를 맞이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차별화된 상품을 확보하는 등 고객맞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예은 기자



지난해 5월 12~14일 3일간 일본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K-컬렉션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일본서 中중소제품 판촉전 K팝과 우수 K-브랜드 시너지 키운다

9~12일 CJ ENM ‘케이콘’ 연계
40개사 참여 1대1 수출상담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에서 K-POP 행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을 개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재단은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케이콘 재팬 2024(KCON JAPAN 2024)’ 연계 우수 중소기업 제품 수출상담회 및 판촉전 K컬렉션을 연다고 8일 밝혔다.

K컬렉션은 CJ ENM이 주관하는 K-POP 대표 한류 페스티벌인 KCON과 연계한 중소기업 제품 판촉전이다.

지난 2014년부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일본에서는 올해 8번째로 열린다. 일본 행사에서만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총 306개사가 참가해 누적 220억원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협력재단은 설명했다.

협력재단은 9일 히비야국제빌딩 컨퍼런스스퀘어에서 일본 현지 유통 바이어와 1대1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0~12일에는 치바현에 위치한 마쿠하리 메세 전시장에서 일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촉전(K컬렉션)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화장품, 식품 등 유망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한다. 특히, 한국어 교육 앱 개발 중소기업인 ㈜에이치투케이가 참여해 콘텐츠 서비스 분야까지 K컬렉션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고 협력재단은 소개했다.

국내 대표 뷰티 플랫폼 파우더룸과도 K컬렉션 공동 홍보관을 조성한다. 파우더룸 부스 내 제품 체험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람객의 판촉을 유도하고, 현지 인플루언서 초대 홍보마케팅을 통해 참여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한다.

K컬렉션 엠버서더(홍보대사)는 신에 아이돌그룹 보이넥스트도어로 선정됐다. 보이넥스트도어는 초대(greeting) 영상을 통해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K컬렉션 부스를 직접 방문해 엠버서더 포토카드 등 굿즈를 활용한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K컬렉션 참여 중소기업 제품은 오는 6월 12일까지 큐텐(Qoo10) 공식 온라인몰 내 K컬렉션 기획전에서도 만날 수 있다. 김유성 기자 kys@ekn.kr

막 오른 ‘철도 지하화’…기대만큼 우려 크다

국토부, 이달말 최종 가이드라인
전문학적 금액·최소 20년 걸려
“사업 실효성·수익성이 관건”

정부가 십 수 년간 선거 공약 수준에 머물렀던 ‘철도 지하화’를 본격화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예상되더라도 불구하고 전문학적 비용 조달 방안, 20년 이상 예상되는 사업 기간 등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전날에는 연말까지 선도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 성과가 초기에 가시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 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하고 내년 말 종합계획에 답을 예정 이다.

전국 8곳 시·도에서 시행될 철도 지하화 대상 노선은 총 552km이며, 이 중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선(인천~구로)이 가장 먼저 사업에 착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를 지하화해 해당 부지를 공원화 또는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당하다. 이미 서울의 용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4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마포 일대 6.3km 경원선 철도 부지를 공원화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여가 공간 제공, 인근 상권 활성화 등 큰 효과를 봤다. 프랑스 파리 리브르고슈 프로젝트도 철도 부지 위에 업무, 상업, 교육, 주거 시설을 조성해 지역 활성화의 국제적 모델로 꼽힌다. 또 △ 대규모 건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건설경기 활성화 △철도 지하화에 따른 생활 여건 개선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 조성·낙후 지역 발전 △주민 숙원 사업 해결 △철도 소음 및 분진 등 환경 여건 개선 등의 긍정적 인 효과가 예상된다.

문제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사업 기간이 길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

된다는 것이다. 우선 과도한 재정이 투입 된다. 지상철도 1km에 대한 순수 공사비는 250억원, 지하철도는 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철도 및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65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공공채권 발행을 통한 민간 유치로 충당될 전망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신용을 기반으로 발행되지만 실패할 경우 막대한 부작용이 예상되며,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고금리 등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철도 부지를 이용한 채권을 발행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더해 최소 20년이 걸리는 등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선도사업 지정 후 최대 3년 안에 기본계획을 세워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GTX, 도시철도, 광역철도 연장이 철도 지하화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철도 지하화를 10년 만에 끝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부지 개발을 위해 땅을 추가로 매입하고 보상하는 문제로 인해 사업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회장)도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 시대인데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은 실효성이 상당히 부족해 보인다”며 “현재 부동산시장 및 민간기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민자유치도 쉽지 않은 만큼 국가전략 차원에서 로드맵을 잘 설정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역 토지 가격 급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불균형 △부동산 투기 바람 재현 △철도 교통 활성화에 지장 초래 △사동차 소음·분진 증가라는 문제점도 있다. 여차피 사업성이 뛰어난 수도권에서만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과밀화 촉진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전세사기·강동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강동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계속되는 전세사기…문제는 제도 그 자체?

피해자 단체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대책 마련 촉구

당정, 다른 범죄와 형평성 문제·비용 등 이유 개정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와 전문학적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전세사기·강동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강동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 등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대·여)를 추모했다. 지난해 이후 8번째다.

이들은 “고인을 포함한 전국의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피해자들을 비탄 끝으로,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여덟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제대로된 상담도 관계기관의 대처도 미흡하고 여러 제한 조건으로 지원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문제해결까지 너무도 복잡한 과정과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는 이런 피해자에게 채권을 평가해서 매입하고 복잡한 과정을 국가가 대신해 줌으로써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들의 요구인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오는 28일 열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봤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채를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 적용된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구제하는 방안이 전례에 없는 일이고, 다른 종류의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전문학적 비용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전세 제도에서 기인한 사회적 재난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세는 월세 대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사금융’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 역할을 했지만 대규모 사기의 수단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갭투자’의 수단이 되면서 집 값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전세 지원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정부는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실행 중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세에 근접한 금액까지도 쉽게 실행되는 전세대출이 투기나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전세대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지방서 귀한 ‘브랜드’ 아파트, 희소성에 인기

올해 지방 대형 건설사 분양 물량
전체의 31% 불과·청약 분위기 주도
수요자, 내집 마련 ‘브랜드’ 가장 중시

지방 중소도시에서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의 인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대형 건설사는 독자적인 기술과 설계 노하우로 수요자들에게 우수한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과 광역시 대비 공급이 적어 희소성이 높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3월) 지방 중소도시(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제외)에서 대형 건설사(10대 건설사 기준, 중견 건설사 포함된 컨소시엄 제외) 분양 물량은 4개 단지 3747가구에 불과해 전체 분양 물량(1만1809가구)의 약 31.73%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분양한 비 10대 건설사 분양 물량인 8062가구 대비 절반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대형 건설사가 지방 중소도시에 공급하는 아파트는 지역의 청약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삼성물산이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분양한 ‘아산 탕정 삼성트라펠리스’는 1순위 평균 407.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1순위 평균 6.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뚝뚝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우수한 상품성과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은 대형 건설사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대형 건설사만의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조정 및 평면, 수납 공간 등이 단지를 선택하는 주된 기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부동산R114가 발표한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요자들은 아파트 구입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브랜드 △조경 및 커뮤니티시설 △단지 규모 △실내 평면 구조를 뽑았

다. 이 중 ‘브랜드’의 경우 40.57%로 1위를 차지했다. 브랜드 아파트는 품질, 설계, 안정성 면에서 수요자들의 신뢰도가 높고 추후 단지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에 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아파트는 가격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대구건설이 시공한 강원도 춘천시 은의동 일원의 ‘춘천 센트럴타워 푸르지오(2022년 3월 입주)’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8억 7000만원에 거래돼 입주 직후인 2022년 6월 동일 면적이 7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약 1년 9개월 만에 1억 200만원 상승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는 스테디셀러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브랜드 아파트 공급 자체가 희소성 있어 수요자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된다”며 “신규 분양 단지의 경우 차별화된 상품들이 두드러지고 향후 단지 가치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투자하기에도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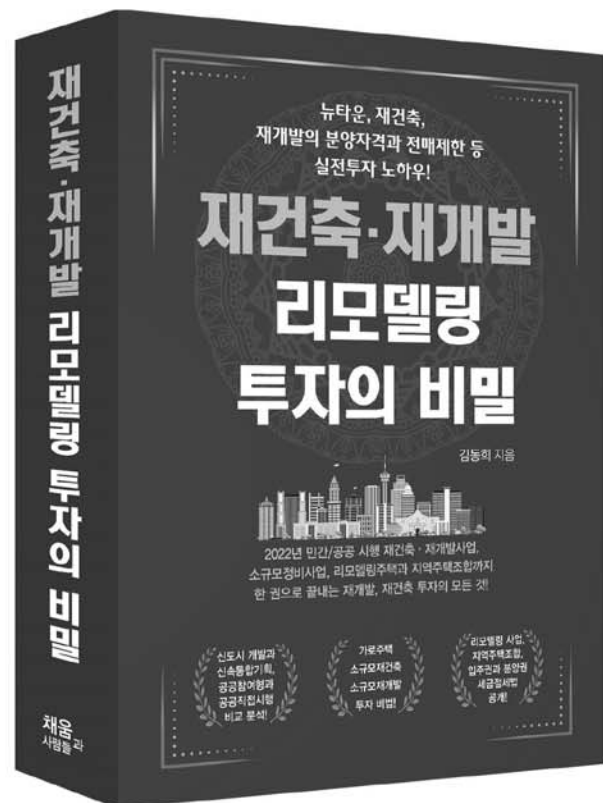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
‘미분양 무덤’ 대구서 완판

분양시장 침체 장기화로 미분양이 확산되고 있는 대구시에서 100%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가 나왔다.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달자0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조감도) 일반분양, 조합별 세대가 100% 계약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 59·84·103㎡ 총 454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270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는 대구지하철 2호선 달구벌대로 반곡개역과 내당역 사이에 자리한 더블엑스레 단지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재개발·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공공직접시행, 소규모주택, 리모델링, 지역주택 등을 한 권으로 알기 쉽게 기술한 책!



김동희 지음 | 736쪽 | 값 50,000원

- 신도시개발, 광의의 재개발 핵심정의 1단계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 각 단계별 실천투자 비법!
- 재건축·재개발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정리
- 분양신청자와 현금청산자 중 누가 더 성공할까?
- 분양권 전매와 대당청 제한, 분양권상한제 등의 핵심 정리
- 재건축사업에서 수익분석과 우량한 물건에 투자하기!
- 재개발에서 분양자격과 현금청산자를 판단하는 방법
- 성공 사례로 배우는 재개발 실천투자 이야기!
- 단독주택 재건축에서 분양자격 유무와 실천투자 비법!
-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분양자격과 각 사업의 전망!
- 서울시 신촌통합기획, 공공참여형과 공공직접시행 투자 실무
- 주택 청약과 당청 후 전매와 대당청 금지, 분양기상한제 등
-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진행절차와 실천투자 포인트
- 지역주택조합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성공한다!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절세방법
- 재건축·재개발 대상 물건에서 계약서 작성 노하우!



김동희 지음 | 560쪽 | 값 32,000원



김동희 지음 | 936쪽 | 값 50,000원



김동희 지음 | 400쪽 | 값 24,000원



김동희 지음 | 592쪽 | 값 29,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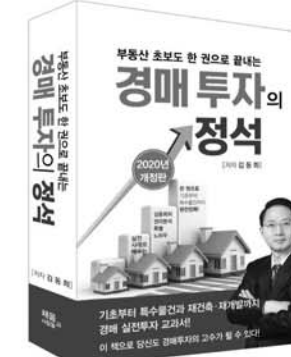
김동희 지음 | 640쪽 | 값 38,000원



김동희 지음 | 424쪽 | 값 29,000원



김동희 지음 | 616쪽 | 값 35,000원



김동희 지음 | 808쪽 | 값 38,000원

부동산채움tv(유튜브 채널) 시청과 교육강좌 안내(김동희부사모 네이버카페)

1. 최근 인기동영상 “임대차3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시청(부동산채움tv).
2. [3월 16일 개강] 민간/공공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과 리모델링 투자 실무반
3. [2월 28일 개강] 경매 권리분석과 실천투자 종합 교육과정
4. [3월 3일 개강] 경매와 공매 실천 배당표 작성 및 배당이의 실무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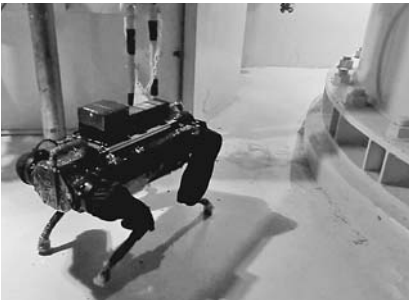
채움과 사람들

출판 문의·교육강좌 및 도서구입 문의 02)534-4112~3

* 온라인강의 홈페이지 : <https://kdh114.com>

ENERGY INDEX (7일)		
원유 (달러/배럴)		
브렌트	↓-0.17	83.16
두바이	↓-0.09	84.04
광물		
금 (달러/온스)	↓-9.87	2314.10
은 (센트/온스)	↓-0.07	27.54
동 (센트/파운드)	↓-0.95	460.55
납 (달러/톤)	↑+21.09	2198.16
아연 (달러/톤)	↑+53.80	2926.43
SAMSUNG 삼성선물 거래문의: 02-3707-3699		

한수원, 고리1호기 해체작업에
로봇 활용 제염작업 효율성 높여



한수원이 고리1호기 해체 제염작업에 자율주행 로봇을 최초 활용한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이 방사선구역 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고리1호기 해체 제염작업에 최초로 활용한다. 한수원은 최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계통제염에 착수했으며, 앞으로 로봇을 활용해 작업자의 피폭은 최소화하고 제염작업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2021년부터 원자력발전소 환경에 특화된 4족형 자율보행 지상으로 붓과 방사선량 측정 센서를 탑재한 실내 자율비행 로봇을 개발해 왔다.

로봇을 활용하면 로봇에 장착된 다수의 카메라와 방사선 센서, 빛으로 형상을 이미지화하는 기술인 3D 라이다(Li dar)를 통해 작업자는 직접 방사선에 노출되는 위험 없이 안전하게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 방사선량 정보를 시각화해 직관적으로 정보를 인지할 수도 있다.

온도와 습도, 가습 센서가 추가된 지상로봇을 활용하면 위험구역 모니터링이 가능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수자원공, 워터라운드 참여社 모집

한국수자원공사가 물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설 스타트업들을 모집한다.

수자원공사는 ‘2024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들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대·중견·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스타트업에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최대 1억원의 사업과 자금이 지원된다. 이후 성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R&D) 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해 최대 1억2000만원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기회가 개발하고, 전 세계로 서비스할 수 있는 개방형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이원희 기자

유엔, 아프리카서 에너지전환 ‘핵심광물’ 개발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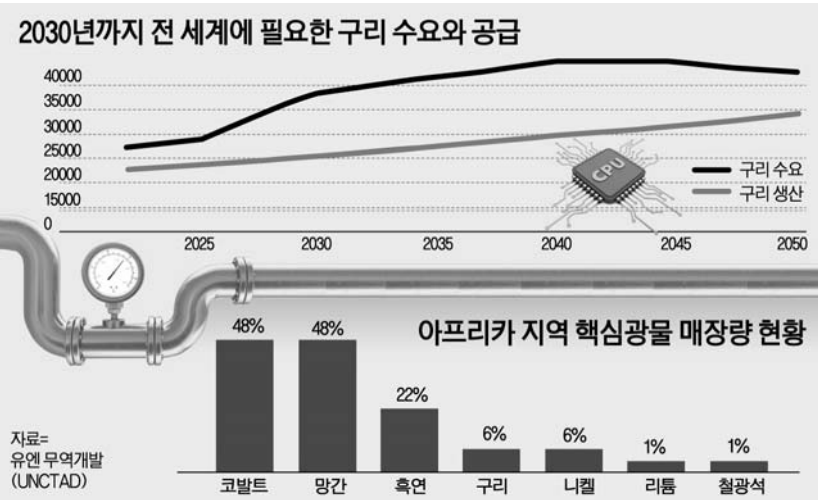
유엔 차원에서 핵심광물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재생에너지 등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핵심광물 수요가 대량 필요한데, 현재 공급력은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유엔은 특히 핵심광물은 대부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매장돼 있어 이를 채굴하고 가공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유엔 무역개발(UNCTAD)에 따르면 2030년까지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구리, 희토류 같은 에너지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수요가 현재보다 거의 4배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은 배터리 필수 광물이고, 구리는 전력망에 필요한 광물이다. 배터리는 자동차 등 수송부문의 무탄소화를 가능하게 하고, 전력저장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도구이다.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이를 수요처로 보낼 전력망도 함께 확충돼야 하기 때문에 구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유엔 무역개발은 “기후 비상사태가 심화되면서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 기차와 같은 재생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제에너지기구(IEA)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엔무역개발 예측에 따르

재생E 필수 광물 수요 늘어 공급 부족 심화…대부분 아프리카 매장
2030년 니켈 등 수요 4배 증가…리튬은 2050년 1500% 이상 늘어나
개발도상국, 채굴·가공 역량 부족…선진국과 협력 광물 공급 필요해
지난달 ‘핵심 에너지전환 광물 패널’ 출범…성공적 에너지전환 추진



그래픽=김배터 기자 seuk22@ekn.kr

면 2050년까지 리튬 수요는 니켈, 코발트, 구리 수요와 비슷하게 1500%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핵심광물은 대부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 매장돼 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이를 채굴, 가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유엔무역개발은 핵심광물이 매장돼 있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협력해 광물을 채굴 및 가공해 공급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고, 특정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

“지정학적 긴장, 청정에너지 개발 협력·투자의 기회”

제1회 ‘에너지통상포럼’

글로벌 자국 우선주의 체제 강화
산업계, 탄소중립·산업발전 시급
현대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추진
인프라 개발·지역 간 연결도 촉진

후정책연구본부장의 ‘우리나라의 에너지 여건과 탈탄소화 방향’ △윤진영 산업통상자원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의 ‘기후에너지 통상 전략’ 주제 발표와 김창규 LNG산업협회 부회장의 진행 속에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김성중 김연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용현 전 아주대 교수는 발표에서 “이란-이스라엘 충돌, 홍해의 후티 반군의 도발 등 에너지 자원 수출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우리와 같이 해외 에너지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가진 나라들에게는 경제적, 나아가 국가 안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운데에는 기술혁신, 국제 협력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의 기회가 있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은 글로벌 무역 패턴을 재편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인프라 개발과 지역 간 연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대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같은 이니셔티브는 잘만 추진되고 활용된다면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과 투자의 길을 제공할 수 있다”며 “에너지와 무역의 넥서스는 보다 정치적 정책 대응, 전략적 투자 및 국제 협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넥서스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주어진 기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무 예경연본부장은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국가 비전, 전략, 주요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분야의 시급한 과제는 공급의 탈탄소화와 수요의 합리화”라며 “공급의 탈탄소화에 관해서 수소·암모니아를 통한 해외 청정에너지 도입, 국내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활용·저장, 원자력이 있는데 이들 각각은 주민수용성, 공간적 한계와 같은 제약 사항이 있으나 사회적인, 효과적 활용 방안을 강구해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의 합리화 차원에서는 환경·사회적 비용 전가로 가격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으나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요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임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과제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와 규제를 확립하는 것도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윤병호 기자



SK E&S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생산한 액화수소를 실은 액화수소 탱크 트레일러가 이동하고 있다.

SK E&S, 세계 최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가동

연 3만톤…수소버스 5000대 충전
연내 20개소…2026년 40곳 구축

세계 최대 액화수소 생산시설인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가 본격 가동된다.

SK E&S가 총 7000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는 최대 연 3만 톤의 액화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연간 약 5000대의 수소버스가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SK E&S는 플랜트와 연계해 연내 약 20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40개소의 액화충전소를 전국에 구축해 액화수소 유통망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SK E&S에 따르면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를 -253℃의 극저온상태로 냉각한 것으로 전 세계에서 9개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인도, 중국, 일본 + 한국)만이 생산하고 있는 고난도 기술이다. 기체수소 대비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 운송효율이 10배 이상 높다. 수소차, 수소버스 등 수소 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고순도(99.9999%)의 특성을 가져 반도체, 방산 등 초고순도 수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첨단산업 업계에서도 활용이 전망된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는 SK E&S가 추진 중인 수소 생태계 구축 계획이 가시화된 첫 성과다. SK그룹은 2021년 3월 국무총리 주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구축 계획을 첫 발표한 이후, SK E&S를 중심으로 수소 생태계 조성 작업에 착수해 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민관 협력’이 빛을 발했다. 지금까지 국내에 액화수소 활용 사례가 없어 현행법 내 안전·기술 기준 등이 부재했고, 신규 법령 제정에만 2~3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대로 사업 지면이 불거지파해 보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사업 추진을 뒷받침했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통해 액화수소 유통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지원했다.

인천시와 인천 서구청도 인천 액화수

소플랜트의 저기 준공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에 대해 관계부처의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적극 협력했다.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으로 ‘수소 선도도시’ 비전을 내세운 인천시의 시내 및 광역·전세버스의 수소버스 전환 정책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으로 대규모 액화수소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벌어진 ‘수소 충전 대란’ 등 수소 보급 불안정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한민국이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SK E&S는 대규모 액화수소 생산뿐만 아니라 액화수소 충전 사업도 함께 추진해 전주기 수소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회사 ‘SK 플러그 하이버스’(SK Plug Hyverse)를 중심으로 전국에 액화수소 충전소 약 40개소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인천에서 생산된 액화수소는 부산, 청주, 이천 등 전국에 설치될 충전소를 통해 각 수요처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chyybh@ekn.kr

산업부,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팔 걷어

노후 아파트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지원 받을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에너지 공급사 및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Kick-off 회의’를 8일 개최했다.

회의는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를 주제로 기관 간 협업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준공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 1000만호를 돌파하는 등 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력설비 고장에 따른 정전,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노후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 효율, 안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린홈 패키지 지원 협의체 회의
200개 단지 전력·냉난방 등 개선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노후 아파트 에너지 효율·안전 강화 방안’을 수립, 발표하여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효율 개선, 안전관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린홈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에너지 효율개선 및 안전관리가 시급한 노후 아파트 200개 단지를 발굴해 전력, 냉난방 공용설비 교체와 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 기관에서 수행 중인 공동주택 지원사업들을 모아 패키지로 지원하고, 단지 내 취약계층 세대 대해서는 냉난방 효율개선, LED 보

급 등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한국전력, 지역난방공사,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등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들이 ‘그린홈 패키지 지원단지에 집중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그린홈 패키지가 올해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노후 아파트의 효율, 안전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비주거용 건물 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에너지 효율개선, 안전관리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지성 기자 jis@ekn.kr

용인시, 서울역·강남역 방면 14개 노선 좌석 예약제

용인특례시는 8일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시행될 개선책은 △광역급행버스 도입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추가 △명동성당 인근 가변 정류장 설치 △퇴근시간대 강남 일일 노선 역방향 운행 등 5가지다.

시는 우선 교통 제증이 심한 출근 시간대 승객이 많은 주요 정류장에만 정차해 이동시간을 단축하는 광역급행버스를 오는 27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명지대에서 출발해 강남역으로 가는 5001-1번, 강변역 방면으로 가는 5600번을 오전 6~8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좌석 예약제로 운행할 예정이다.

좌석 예약제는 시민들이 오전 6~8시에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의 좌석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 DIGILOCA)을 통해 예약한 뒤 탑승하는 서비스다.

내달부터는 5001번(강남역), 5005번(서울역), 5700A번(강변역)에도 적용하고 급행버스로 운행하는 5001-1번과 5600번도 포함시킨다.

이에 따라 용인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14개 노선(33회)에서 좌석 예약제가 시행된다.

급행 5001-1번, 5600번 이달 도입
2층 전기버스 14대도 순차 투입
주요 정류장만 정차해 시간 단축

시는 광역버스 승객이 더 많이 탈 수 있도록 친환경 2층 전기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도입기로 한 총 50대의 전기버스 중 14대가 시에 배정돼 올해 말까지 순차 투입될 전망이다.

대상 노선은 명지대에서 출발하는 5000A/B번(서울역) 5대, 5001번(강남역) 1대, 5003번(강남역) 8대로, 만차 운행이 잦은 이들 버스노선에 어느 정도 승통이 트일 것을 기대된다.

시는 서울 시내 도심 혼잡으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오는 16일부터 서울 중구 명동성당 방향으로 운행하는 4101번, 5000A/B번, 5005번, 5005(예약)번, P9211(퇴근)번이 중앙차선 버스정류장이 아닌 가로변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이 가능해져 버스전용차로 혼잡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퇴근 시간대에 서울 강남에서 경기도로 향하는 광역버스가 열차처럼 일렬로 늘어지면서 발생하는 버스전용차로



용인 명지대에서 서울 강변역을 오가는 5600번 버스를 오전 6~8시 급행버스로 운행한다.

의 정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노선은 정류장 순서를 바꿔서 운행한다.

대상 노선은 1560번, 5001번, 5001-1번, 5002B번 5003번으로 내달 말부터 경부고속도로→신양재IC→강남→신논현→반포IC→경부고속도로 등의 방향으로 운행하며 기점에서 출발하는 첫차부터 오후 2시까지 기존 방향으로, 오후 2시부터 막자까지 역방향으로 운행한다.

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역방향 운행으로 차량이 몰리는 퇴근시간 경부고속도로 하행방면 진입이 일부 완화돼 이동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광역버스 개선 방안을 협의해 이 같은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그동안 검토한 개선책들을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광역버스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계속 협의해서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송인호 기자 sih31@ekn.kr

DGB금융그룹, 참여형 활동 확대로 전국 사회공헌사업 강화

ESG공모전·파트너스데이 등 개최
전국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도 지원

DGB금융그룹은 K네이버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네이버 해피빈 등 전국 사업을 담당하는 NGO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참여형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DGB금융그룹은 ‘ESG아이디어공모전’, ‘사회공헌파트너스데이’를 통해 전국 대학생, NGO, 사회적 경제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 등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



DGB대구은행 제2본점 전경

안받고, 이를 실제 사업에 수행될 수 있도록 임팩트 후원금을 마련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멘토링 사업 또한 수도권과 대구·경북의 직접적인 후원과 더불어 전국 규모의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를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대상자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사회 곳곳의 취약계층을 위해 밥 흘리는 사회복지사를 격려하기 위해 ‘힐링여행’, ‘따뜻한 사회복지사상’ 시상 등 전국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네이버 해피빈과의 협력으로 ‘더블 기부 및 이달의 기부 사업’을 통해 네티즌과 함께 테마별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DGB금융그룹은 계열사 사회공헌 담

당자와의 정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순 후원에 그치지 않는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사회공헌의 새(新)바람을 일으키며 따뜻한 금융 실천을 이행할 계획이다.

DGB금융그룹 황병우 회장은 “전국 규모의 참여형 사회공헌사업 확대로 사회 각 층의 전문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어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대구=손종모 기자 jimson220@ekn.kr

경기도, 수출기회 바우처 사업 150개사 참여모집

해외 마케팅 등 7500여 서비스 지원
“도내 수출기업 글로벌 활약 도모”

경기도가 8일 마케팅이나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 결과, 150개사 모집에 673개사가 참여해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하던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기업 수출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한 것으로 도는 지원 대상을 50개 사에서 150개 사로 늘렸고 바우처 서비스를 13개 분야에서 ‘무역보험·보증’을 신설한 14개 분야로 확대했다.



경기도청 전경

도는 이런 사업 확대·개편이 많은 기업들의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사업별로 심사를 통해 기업을 선발하다 보니 기업들이 적

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었다.

신청 기업 대상 평가는 총 3단계로 지난 4월 12일 완료된 1단계 서류평가에서

수출 성장률, 경기도 인증 보유 여부 등을 평가해 약 300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2단계 현장 평가, 3단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150개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기업당 1000만원(자부담 20% 포함) 범위에서 △해외 마케팅 △국제 운송 △해외의 규제 인증 등 14개 분야 7500여 서비스를 기업이 직접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경기 수출 기회 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아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경기도는 수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도내 수출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수출 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인 업체이며 모집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했다.

경가=송인호 기자

광주시, 고령자·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추진

‘보조기기 실용화 공모’ 선정·수요 발굴·실증 등 원스톱 개발체계 구축

광주광역시와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개발을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총 12억6000만원(국비 11억2500만원)을 투입해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보조기기 개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생활 맞춤형 보조기기는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립 및 일상생활에 필요하지만, 개인별 상황에 따른 요구사항이 각기 달라 민간시장 중심의 보조기기 산업화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광주시는 이에 공공영역에서 보조기기 사용자의 장애 유형, 신체 활용 능력 등을 고려해 3D 프린터를 이용한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보급에 나선다.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에는 광주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현장 실증, 사용성 평가, 인공지능(AI) 융합형 보조기기 개발 등을 수행하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재활 공학을 기반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운영, 개발된 보조기기를 양산화하는 원스톱 개발 체계를 구축한다.

광주시는 광주광역시보조기기센터, 호남권역재활병원, K-하이테크플랫폼 등 산·학·병·연을 중심으로 ‘지역 기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고령자와 장애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반영,



광주광역시청

개발 과정에서의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또 개발 과정과 설계도를 개방해 앞으로 보조기기의 개선과 재제작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지역에 등록된 장애인(약 7만명)과 65세 이상의 고령자(약 22만명)는 광주 전체인구의 약 20.5%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과 고령자 보조기기 사용자 중 24%가 자신에게 맞는 보조기기가 없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해 이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보급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기술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라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융합형 보조기기 기술 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을 모색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정진 기자 leeji0537@ekn.kr

홍성군, ‘김 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박차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착수...사업 발굴 등 미래 성장동력 마련

충남 홍성군이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7일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장, 과장 등 부서 관계자와 용역 수행기관인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 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 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K-푸드 김 산업의 새로운 중심, 해양수산 홍성’이라는 비전 아래 김 산업의 발전계획 수립의 추진 방향과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의 대표 수출 품목인 조미김(광천김)은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단일품목 수출실적 전국 2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 효과성으로 등극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김 수요 급증으로 국내 재고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공 업체들이 마른김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미김 생산원가도 가파르게 상승하며 기업 운영에도 어려움을 직면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군은 김 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발전계



김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획을 수립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미래 먹거리 발굴과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군 특화전략과 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용록 군수는 “연구진과 주민, 공직자 모두가 협력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김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군에서도 김 산업의 시장 확장성을 위해 90ha의 신규 김 양식장 조성 등 김 산업의 새로운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성=박용현 기자 ad0824@ekn.kr

공주시, 물류 취약지역 드론 배송 도입 ‘박차’

중앙소방학교와 드론 배송 상용화 도모

공주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의 본격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대상 지역은 중앙소방학교와 공주시 산림 휴양마을(숙박동) 등 총 15곳의 물류 배송 취약지역이다.

또한 야식, 지역특산물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여 교육생과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시는 지난 2월 ‘2024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억 7천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 이달 중 비행을 구축하고 테스트 비행을 거쳐 다음 달 국토교통부의 특별 비행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시는 중앙소방학교와 상호 협력을 통해 물류 취약지역 주민과 교육생들의 편의성 향상은 물론 드론 배송 서비스의 우수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주시가 국내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공주 형 드론특화도시’로 발



공주시가 드론 실증 도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최원철 시장 등 관계자들은 중앙소방학교 방문해 사업을 논의했다.

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원철 시장은 최근 중앙소방학교를 방문해 김승룡 중앙소방학교장을 만나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사곡면 국민 안전교육 연구단지로 지난 2019년 이전한 중앙소방학교는 전국 각지의 소방관들이 기초훈련부터 고난도 훈련까지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훈련시설을 갖추고 연간 2만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다.

공주=박용현 기자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 플라워마켓’ 2024고양국제꽃박람회 주재광장 일원에 펼쳐진 ‘고양 플라워마켓’에선 고품질 특산물, 이색상품 판매장, 특산물관 등 60개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들어있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캐네이션, 선인장, 다육식물 등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꽃과 식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고양=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주시 ‘찾아가는 행복병원’ 본격 운영

경주시가 포항의료원과 연계, 지역 내 의료취약마을 9곳을 선정해 올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의료진단 장비를 갖춘 이동검진버스를 이용해 무료검진 및 진료,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의료취약지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경주시는 올해 첫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감포읍 아랫너븐 경로당으로 정하고 최근 인근 주민 17여명을 대상으로 진료 및 약 처방, 기본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을 진행했다.

시는 검사결과에 따라 정밀검사나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지역의료기관으로 연계해 추후관리 및 피



경주시가 포항의료원과 연계, 지역 내 의료취약 마을 9곳을 선정해 올해 ‘찾아가는 행복병원’을 운영한다.

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강 경주시 보건소 지역보건과장은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이동진료를 실시해 선제적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불평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손종모 기자 jimson220@ekn.kr

AI·SW 역량 키우는 LG전자 임원 200명

“삶이 있는 공간에 ‘스마트 라이프’ 제공”

LG전자, 9월까지 4회 교육
영상·음성·언어지능 등 탑재
고객과 교감, 도움 사례 학습
AI·SW 교육 통해 가전 넘어
집·차량·메타버스 공간까지
고객 경험 연결, 확장시켜

LG전자가 비전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LG전자는 국내 주재 임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4회에 걸쳐 AI·SW 교육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전 사업 영역의 임원을 대상으로 우선 교육해 AI와 SW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성원과 함께 AI와 SW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AI·SW 역량 확보로 가전을 넘어 집, 상업 공간, 차량을 포함한 이동 공간,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까지 고객의 삶이 있는 모든 공간에서 고객 경험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AI와 SW를 모든 사업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다룬다. 특히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 사례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



AI·SW 교육을 듣고 있는 국내 주재 LG전자 임원들.

는 AI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체감하고, 고객 가치를 위한 LG전자의 AI 비전 실현 방안을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영상 지능과 음성/언어 지능, 센서/멀티 모달 지능 등을 제품에 탑재해 제품이 고객과 교감하고 실제 삶에 도움을 주는 사례를 학습한다. 이를 통해 LG전자의 AI인 ‘공감지능’을 실현해 나간다는 목표이다. 앞서 LG전자는 AI를 공감지능으로 재정의하고, AI가 고객과 공감하고 삶에 스며드는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SW 교육에서는 SW 플랫폼 구조와 가상화 기술, 정보보안 등을 중심으로 SW 개발 프로세스를 교육한다. 하드웨어(HW)와 SW 사이에서 시스템 전반의 원활한 동작을 지원하는 운영체제(OS)에 대해 교육하고 선진 SW 개발 프로세스를 학습한다.

LG전자는 임원 대상 교육을 앞으로 △로보틱스 △메타버스 △클라우드·데이터 △시스템 온 칩(SoC) △통신·미디어 표준 △소자 재료 △광학 등으로 확장해 진행할 예정이다.

LG전자는 가전·TV 분야에서 AI와 SW를 활용한 혁신을 지속하고, 모빌리

티와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SDV) 솔루션을 지속 개발하고, 로보틱스 분야에서 AI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IoT) 기술 등을 결합한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우선 LG전자는 SW 리스킬링 프로그램을 지난해 처음 도입했으며, 올해 상반기 271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SW 리스킬링 프로그램은 비(非) 소프트웨어 직원들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데이터 사이언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 AI·디지털 전환(DX)·정보 보안·프로그래밍 등 각 사업본부 내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연구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교육 영상 ‘러닝 크리에이터’ 활동도 이어지고 있으며,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LG 해킹 대회’를 지난해부터 그룹 전체로 확장해 운영하고 있다.

박규민 기자 kevinpark@ekn.kr

골드만삭스 “엔비디아 주가 여전히 싸”

블룸버그 등 외신 “AI 수요 지속 갑안, 엔비디아 1000→1100달러 상향”
스노우던 “4분기 구리 재고 바닥 가능성…전망치 1만→1만2천달러”주장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금리 장기화 기조를 강조하면서 투자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유망한 투자처를 지목해 관심이 쏠린다.

8일 비즈니스인사이드,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7일(현지시간) 투자노트를 통해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가가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수요가 앞으로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엔비디아 기업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라는 주장이다. 하리 토시아애널리스트는 “주당순이익(EPS) 상향 조정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 같다”며 “(기업들의) 인공지능 지출이 2024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이 AI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있음에도 엔비디아를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목표주가를 기존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905.54달러에 장을 마감한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20% 가량의 상승 여력이 있는 셈이다.

골드만삭스의 또다른 애널리스트인 니콜라스 스노우던은 같은날 투자노트를 통해 구리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노우던 애널리스트는 “2024년부터 공급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계속 예측하고 있다”며 올 4분기까지 구리 재고가 바닥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올 연말 국제 구리가격 전망치를 기존 1만 달러에서 1만2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



엔비디아

EPA/연합

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톤당 9847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구리 가격은 올해 16% 가량 급등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구리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구리는 실물경제를 예측해 선행지표로 활용돼 ‘닥터 코퍼’로 불린다. 또 인공지능(AI) 데이터 처리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구리 수요가 폭증했다.

이러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지난달말 트레이딩 노트를 통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일본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홍콩증시에선 숏커버링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롱포지션만 구축하는 헤지펀드들도 높은 일본 밸류에이션으로 홍콩증시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이날 밀턴 연주소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장기간 이 자리(현재 금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다시 둔화하기 시작하거나 노동시장이 현저하게 약화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3%에 고착화돼(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확신이 생기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T, 기업銀과 중소기업
정보보안 강화 ‘맞손’

명제훈 KT 통신사업본부장(왼쪽). 임문택 IBK 기업고객그룹장(부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기업 디지털 서비스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T와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보안의식 제고와 안전한 디지털 거래 환경 제공을 위해 손을 잡았다.

KT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IBK기업은행과 기업 디지털 서비스의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KT의 지능형 위협메일 차단 서비스(AI메일보안)와 IBK기업은행의 बैं킹 서비스 및 금융상품을 연계, 중소기업 대상 이메일 해킹 피해를 예방코자 한다.

구체적으로 KT의 인공지능(AI) 메일보안 서비스와 기업은행의 기업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연계할 방침이다. 기업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KT의 AI메일보안 서비스를 가입하면 IBK 전용 요금제 및 기업은행 금융상품 금리 우대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다.

KT AI메일보안 서비스는 악성메일 탐지에 AI분석기술을 접목해 통합메일보안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서비스다. △악성 메일과 광고를 차단하는 스팸 보안 △지능형 공격(APT) 위협을 탐지하는 동적 분석 샌드박스 △신·변종 위협을 탐지하는 AI분석 플랫폼으로 구성됐다.

KT AI메일보안 서비스는 KT AI 분석 플랫폼을 통해 분석한 연간 2억 건 이상의 이메일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데이터베이스(DB)를 국내 환경에 맞게 최적화해 시그니처 기반 보안 솔루션보다 탐지율을 최대 22% 높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명제훈 KT 통신사업본부장은 “고객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질의 보안 서비스를 IBK기업은행과 나눌 것”이라며 “양사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디지털 보안의식 제고와 업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에쓰오일 “청년 푸드트럭 사업가 꿈 응원”

푸드트럭유류비 1억2천만원 지원
2018년부터 유류비 후원 시행
선발 50개팀에 주유상품권 지급

S-OIL은 서울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에서 ‘청년 푸드트럭 유류비 전달식’을 갖고 함께 일하는 재단에 후원금 1억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S-OIL은 청년실업 해소와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푸드트럭 유류비 후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푸드트럭은 문화공연과 결합하여 전국 지자체 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도입이



S-OIL 안와르 알 히즈아지 CEO

확대돼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주목받았지만 지난 몇 년간 코로나19에 따른 형

사 추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S-OIL은 만 39세 미만의 전국 푸드트럭 창업자를 대상으로 유류비 지원 프로그램을 공개해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총 5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 팀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한다.

안종범 S-OIL 마케팅총괄 사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표를 향해 열정적으로 매진하는 청년 사업가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S-OIL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KT에스테이트,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앞장

KT그룹의 종합부동산기업 KT에스테이트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소외 이웃들을 지원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나선다.

KT에스테이트는 서울 중구·광진구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KT에스테이트가 사업영역인 부동산업(業)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기획한 ‘사랑의 집 고치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KT에스테이트는 경기 김포시, 서울 강남구 등 지자체와 협력해 도움이



최남철 KT에스테이트 대표(오른쪽)와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정돈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KT에스테이트와 각 지자체는 올 연말까지 주거환경 개선 대상 가구의 도배

·장판 공사 및 전선·전등·콘센트 교체, 잠금장치 수리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각 지자체별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아 소득수준과 주거 형편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공사 당일에는 KT에스테이트의 임직원과 구청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에 나선다. KT에스테이트는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며, KT에스테이트의 전문 협력업체가 기술분야 시공을 맡는다. KT에스테이트는 사랑의 집 고치기 활동 이외에도 김장 담그기 후원, 저소득 홀몸어르신 가정 방한용품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남철 KT에스테이트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LG헬로비전, B2B전용 ‘테이블오더’ 출시

LG헬로비전은 자사 렌탈 패키지 헬로렌탈이 기업간거래(B2B) 전용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헬로렌탈의 ‘테이블오더’는 손님이 테이블에 비치된 태블릿을 통해 메뉴를 직접 주문·결제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태블릿 메뉴판, 태블릿 알림판 보조배터리 등으로 구성됐다. 총 세가지 디자인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지원하며, 결제방식 기준으로 선불형·후불형 타입 중 선택 가능하다.



LG헬로비전 모델들이 헬로렌탈의 B2B 전용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객은 이 서비스를 업계 최저 수준인

1대당 월 렌탈료 1만 98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헬로렌탈은 디지털·비대면 매장 트렌드를 반영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렌탈 패키지로 ‘미래형 식당’을 앞당긴다는 목표다. ‘테이블오더’를 시작으로 향후 서빙로봇과 웨이팅 키오스크를 연계해 매장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필요 가전들을 패키지로 제공해 부가가치를 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LG헬로비전은 ‘테이블오더’ 도입 시 주문 실수·누락을 예방함과 동시에 요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부담되는 인건비를 약 7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태민 기자

남양유업, ‘몽드 셀렉션 평가’ 은상 수상

〈벨기에 소비재품질평가기관〉

식물성 유산균으로 ‘플로라랩’…유산균과 식이섬유 한번에 섭취 특징

남양유업은 자사 식물성 유산균으로 ‘플로라랩’이 세계적 권위의 ‘몽드 셀렉션(Monde Selection) 평가’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몽드셀렉션은 1961년 벨기에에서 창립된 소비재품질 평가기관이다. 식품·음료 등의 카테고리 대상으로 셰프·소믈리에·교수·과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단 80여 명이 엄격한 기준으로 품질을 검증하고 상을 수여한다.

지난해 9월 출시된 남양유업 ‘플로라랩’은 최근 가치소비, 비건(Vegan: 채식) 트렌드에 발맞춘 식물성 요거트 제품이다. 알레르기나 유당으로 우유, 발효유 섭취가 어려운 소비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이 제품은 동충 제품군 중 처음으로 이중재형 형태로 개발됐다. 과채 발효효소 분말과 채소·과일 27종을 담은 정제, 숙성 발효한 토마토·당근을 활용한



남양유업 식물성 유산균으로 ‘플로라랩’

예상을 담아 유산균과 식이섬유를 한번에 섭취할 수 있다.

또한, 플로라랩 한 병으로 하루 채소 섭취 권장량 부족분의 45%를 보충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없고, 색소도 넣지 않았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맛은 물론 건강한 신체 밸런스가 유지할 수 있는 다채로운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귀뚜라미, ‘생활 속 가스안전 실천’ 캠페인



귀뚜라미에너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구로구청 관계자들이 ‘생활 속 가스 안전 실천 캠페인’을 진행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가스안전공·구로구청 공동

(주) 귀뚜라미에너지(대표 이명호)는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 구로구청(구청장 문헌일)과 공동으로 ‘생활 속 가스 안전 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 일대에서 진행된 생활 속 가스 안전 실천 캠페인에는 귀뚜라미에너지, 한국가스안전공사, 구로구청 임직원 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 임직원들은 신도림역을 왕래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스정용보일러의 올바른 사용방법 △수리 집 가스 안전 조치법 △화재 예방 수칙 등 생활 속 안전 실천 방법을 알리고, 가스 안전 사용법이 수록된 책자와 기념품을 증정했다. 현장에서 가스 관련 민원도 접수 받고 고객센터를 통해 빠르게 해결해주는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활동도 진행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김보라 안성시장 “수도권 최고 미래첨단·문화도시로 우뚝”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 안성시 <상>

현재 안성시의 발전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는 반도체와 철도, 문화도시 등 삼두마차이다. 이처럼 민선 8기 안성시는 ‘시민중심·시민이익’을 비전으로 지역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적극적인 시정과 정치철학인 소통을 토대로 20만 시민과 협치를 이뤄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에 김 시장은 올해 안성시의 3대 핵심 화두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지속가능한 도시·성장하는 도시’를 제시하고 민생안정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보는 안성시 발전에 핵심이 되는 첨단산업과 문화, 세대별 복지, 농업 등을 토대로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상세히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기 안성시의 미래 청사진은 밝고 생기가 넘치며 이에 따른 콘텐츠가 가득하다. 수도권에 여타 도시와 달리 안성만이 갖는 독특한 고구문화가 있으며 최근 들어선 4차 산업혁명의 최첨단 신기술 기업들이 속속 입주하거나 계획되면서 도시가 변화의 격랑 속에 휩싸여 있다. 한마디로 고풍스럽고 고즈넉한 ‘고도(古都) 안성’의 이미지는 이제 없다고 봐야 한다.

안성시가 변하고 있다. 그동안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차곡차곡 쌓여 있던 안성만의 독특한 자력이 위용을 드러내면서 첨단도시의 기틀을 착착 다지며 융트립하고 있다. 주민들은 막 불기 시작한 개발의 광풍에 몸을 싣고 미래를 향한 ‘안성호’란 급행열차에 동승하고 있다.

안성시의 혁신적인 변화는 주변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 모든 것이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이뤄진 일대 변화들이다. 철도의 밀집이 그려지고, 시스템반도체로 무장한 반도체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1000여년 만의 변화이자 대변신의 출발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안성시의 이런 모습은 자자성어인 줄탁동시와 닮은 꼴이다. 그간의 안성시가 계란 속의 병아리라면 벽을 깨는 외부의 충격적인 변화를 선도한 그 어미 닭은 민선 8기의 김보라 시장의 추진력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벽에 갇혀 있던 안성의 자력 분출과 그 벽을 깨는 김보라시장의 열정과 추진력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생각이다.

안성시의 변화 저간에는 김 시장의 소통행정과 혁신 의지의 결함이 단단한 토대를 이루고 있다. 또 사실상 그의 많은 아이디어가 콘텐츠화하면서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안성시는 올해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활발히 추진한다. 지난해 안성시는 보개면 동신리 일원 157만㎡ 규모의 동신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조직개편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성과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를 가동하고 경기도와 협의회 안성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며 반도체 허브 도시를 향한 혁신전략 수립과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안성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맞춤형 지원방안 확정에 따라 411억원의 국비를 토대로 기술개발을 비롯해 반도체 소부장 실증·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지역대학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특화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특화단지로 선정된 동신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6747억원이 투입돼 2027년 착공해, 2030년 이내에 목표로 준공될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증가와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성시는 지역대학과 협력해 반도체 관련 학과와 반도체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며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안성도시공사 설립으로 문화, 교육, 체육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내륙선과 평택부발선 등 철도사업이 더해져 동신산단 주변으로 미니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지리적으로 생활권이 연계되면서 반도체 생태계 구축과 함께 정주여건 등 후광효과를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여, 그 파급효과는 벌써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안성시는 지역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과 역사, 문화관광 자원 등을 토대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에 적극적이다.

안성시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동안 주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며 문화도시 브랜딩 구축에 앞장섰고, ‘장인문화유동을 통해 삶의 질을 실현하는 안성문화장’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받았다.

올해는 예비 사업 추진을 통해 문화상단 발굴·육성을 통한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사람과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도록 문화주제 육성, 문화경쟁력 강화 등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과 심층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문화도시 사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성시는 경기도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됐다.

안성시는 지역의 고유문화를 활발히 교류하며 상호이해와 연대감을 형성하고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등 지역의 대표 행사를 해외로 적극 전파해 안성 문화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골목 없는 공장인 관광산업 분야의 경우,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금광·철광·청룡·고삼호수)을 가속화하고, 오는 6월을 목표로 80.8km에 이르는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탐방로(숲 생태길·하늘전망대·탐방편의시설) 조성을 마무리한다.

또한, 안성시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바우덕이 축제와 지역 소규모 행사를 활성화하고 경기 안성뮤지컬페스티벌(소공연장, 창작공간, 악기도서관 등) 조성을 추진하는 한편, 오는 9월 안성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세계소프트테니스선수권대회



김보라 안성시장은 8일 “안성시를 K-반도체 벨트 핵심도시로 부상시키는 등 경기 남부권의 최고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철도·문화도시 사업 ‘삼두마차’…소통 통한 협치로 발전 이끌어내
반도체 특화단지, 혁신 출발점이자 기폭제…‘K-반도체 벨트’ 핵심 도시로
경강선 안성연장, 교통혁명 시발점…수도권 광역철도 구축 범국민서명운동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글로벌 문화경쟁력 강화…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안성문화도시 추진단 발대식 및 비전선포식 모습.

를 통해 안성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한다.

안성시민의 그동안의 염원은 철도시대 개막이다. 1985년부터 안성선이 폐선되며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철도가 부재한 도시가 바로 안성시였다.

따라서 안성시는 지역의 숙원사업이자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인 ‘철도망 구축

사업’을 토대로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부발선 등 안성철도시대 개막을 위해 현재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경강선 철도 안성 연장계획이 반영된 성과는 김보라 안성시장의 주도면밀한 플랜과 시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안성시는 경기 광주와 용인 남사, 안성

을 잇는 경강선 연장사업(전철)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된 만큼, 경기도와 지자체,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수도권 광역철도(GTX) 연장 노선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경기도와 국토부 등에 적극 건의

하기로 했다.

안성시는 이와함께 수도권내륙선의 경우 동탄역에서 안성과 청주공항까지 78.8km를 이으며 2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광역철도망 사업으로 올해 6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설계 용역을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평택부발선은 사업비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평택에서 안성을 지나 부발에 이르는 62.2km 구간으로 2021년 10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이 시행되고 있으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등 새로운 개발 호재가 반영돼 올해를 기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와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런 철도시대 개막은 안성시를 수도권 남부의 최대 도시는 물론 반도체로 연결되는 용인, 화성, 평택으로 이어지는 K-반도체 거대도시 가운데서도 핵심도시로 부상할 기폭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는 이에 우선 수도권과 중부권 최대 현안 사업인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구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안성시는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구축 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같은 해 8월, 화성시, 진천군, 청주시와의 협약을 통해 4개 시·군 행정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철도의 조기 착공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서명운동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착공 4개 시·군 행정협의체’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작성된 서명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책성 확보 자료로 활용되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안성시는 이번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으고, 조속한 철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의 숙원사업인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는 수도권과 중부권 지역을 연결해 경부선 위주의 교통수요 분산은 물론,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안성철도시대 개막과 시통팔달 안성시를 향해 많은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이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동신산업단지 예정부지 전경

플라스틱 협약, 한국 리더십 발휘해야

EE칼럼

Energy&Environment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달 말 캐나다 오타와에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협약(이른바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을 위해 열린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가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INC-4에서는 지난해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INC-3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 작성한 ‘수정 초안(revised draft text)’에 대해 토론을 계속했지만, 참가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유엔 차원에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대응은 기후변화 대응에 비해 논의 자체가 매우 늦게 시작됐다. 2022년 2월에 역시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 Environment Assembly: UNEA-5.2)가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 및 소비부터 폐기물의 처리까지 전주기를 포함시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2022년에서야 비로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협약을 마련하지는 데 중론이 모아진 것이다. 성안을 목표로 총 5차례의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마지막 정부 간 협상이 될 INC-5는 올 해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논의는 일찌감치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과정이 매우 길었다. 1997년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당사국 총회(Third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3)에서 이른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지만, 미국은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비준을 거부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역사적 책임이 크다고 하는 선진국들과 아직 산업화를 해야 하는 개발도상국 사이의 간극이 커서 감축에 대한 의무가 이른바 Annex I에 속하는 선진국으로 한정되었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참가국 전체가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된 데에는 개최국인 프랑스의 올랑드 전 대통령과 당시 유엔의 수장이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했다. 7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지구온난화를 경고해 왔고, 90년대 초에 들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무려 20여년의 노정을 거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협정을 탈퇴하여 다시 한 번 기후 거버넌스 레짐을 흔들기도 했다.

기후 거버넌스 레짐이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친 것을 떠올릴 때, 플라스틱 협약의 성안도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INC-5까지 전문가 그룹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지만, 최대 쟁점 사안이라고 하는 1차 플라스틱인 폴리머 생산의 감축은 아예 의제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 환경 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이는 1차 플라스틱의 주원료가 되는 석유를 생산하는 주요 산유국들이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입장 역시 미묘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년대만 하더라도 불과 150만 톤 수준이었지만, 2021년에는 약 3억 9천만 톤에 이르렀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소비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한국인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88kg 정도였으나, 이제는 조사 기관마다 수치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90kg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모두 막대하다 보니, 정부 역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해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INC-4 개최 기간 중 대평양 도서국들을 포함한 20여 개국이 폴리머 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부산으로 가는 다리(Bridge to Busan)’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정작 개최국인 한국은 참여하지 않아 빈축을 사게 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깊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온 것은 수출이고,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인 석유화학 제품의 경우 수출 비중은 60%에 달한다. 그러나 국내 우수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대체할 만한 재료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부산 INC-5를 산업 체질 전환의 계기이자 미래 경제 패러다임으로의 이행을 주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고 있느니 만큼 플라스틱 거버넌스 레짐 설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장이 다른 국가 간의 간극을 조율하는 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인류세의 유산이라는 플라스틱의 오염 방지를 위한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결단과 리더십이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

중동 분쟁 장기화와 한국경제 리스크

이슈&인사이트

Issue&Insight

이강국

전 중구 시민경제
총영사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로 시작된 전쟁이 7개월째로 접어들고 확산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고강도 보복 작전과 하마스의 반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쟁에 헤즈볼라와 후티가 가세하였다. 특히, 후티반군은 홍해를 운항하는 상선들에 대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국가 연합은 후티반군과 예멘에 폭격을 가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구두 경고를 해 오던 이란이 직접 나섰다. 먼저 양국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그림자 네트워크’를 겨냥한 공격으로 주고받았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지난 1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에르빌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첩보본부를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유엔 사무소와 각국 대사관 등이 몰려 있는 마제흐 지역에 있는 한 주택을 미사일로 폭파시켜 IRGC 소속 장교와 대원들을 폭파시켰다. 나아가 4월 1일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타격하여 IRGC의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인 모하마드 레자 자헤디를 제거했다.

그러자 이란은 자국 외교기관이 공격을 받았다고 분노를 표시하고 300여기의 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타격하였다. 이스라엘은 보복으로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동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이스파한의 군사 기지를 공격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상대방의 본토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서 암암리에 벌여온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동 지역에서 지정학적 불안이 다시 고조되자 국제유가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다행히 양국은 보복은 가하되 레드라인은 넘지 않는 ‘약속대련’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파국은 피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으로부터 날라 온 미사일과 드론의 99%를 요격했다고 밝혔듯이 이란의 대규모 공격으로 입은 피해는 무시할 정도였다. 이스라엘은 아이언돔도 막기 힘든 ‘램페이지’ 미사일로 이란의 S-300 기지를 파괴함으로써 ‘방공망 무력화’라는 실력은 보였지만, 이란이 반격 안 할 수준을 골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선제공격-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전쟁이 보복 강도를 높이다 보면 돌발 변수에 의해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에 이어 중동 정세가 악화되어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세계경제는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3중고에 빠졌다. 우리나라로서는 중동 분쟁이 격화하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후티반군은 호르무즈해협 통과 상선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만약 이란이 가세,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면 국제 원유 가격은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원유수입량의 80%가 통과할 정도로 호르무즈해협은 에너지원의 생명선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계에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국제유가 충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분쟁으로 유가가 급등할 경우 우리나라 올해 4분기 물가상승률이 4.9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불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유 도입선 다변화, 비축량 확대, 가격 헤지 등 원활한 원유 수급을 위한 대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어 지척에 있는 러시아산 석유도 수입하여 바람 잘 없는 중동 정세와 관계없이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외부필자의 원고는 에너지경제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힘 **에너지경제** www.ek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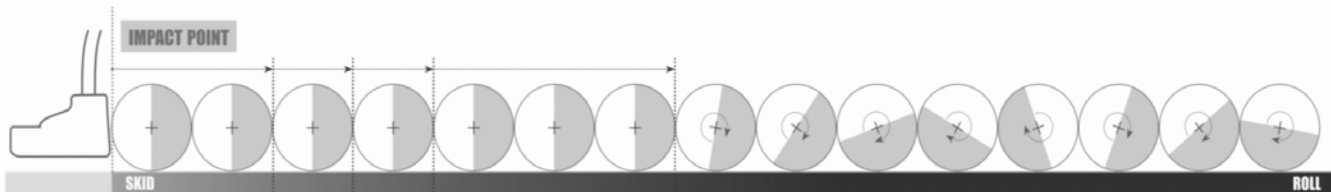
우) 04516 서울 중구 새문안로 26 청양빌딩 5층	발행인 송용희 사장 임정호 편집국장 송영택 인쇄인 곽태현			
대표전화 02-850-0114 대표팩스 02-867-0453 광고문의 02-6749-3124 구독문의 02-6749-3125 MICE 사업문의 02-6749-3149 독자서비스센터 02-714-1212	· 정치경제부	02-6749-3117	· 기후에너지부	02-6749-3140
	· 산업부	02-6749-3114	· 국제뉴스부	02-6749-3173
	· 금융부	02-6749-3172	· 전국부	02-6749-3119
	· 자본시장부	02-6749-3170	· 종합편집부	02-6749-3127
	· 유통중기부	02-6749-3147	· 디지털콘텐츠국	02-6749-3151
	· 건설부동산부	02-6749-3160		
		· 1989년 5월 26일 창간· 등록번호 서울 가-50065호		구독료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월 20,000원 1부 1,000원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숏퍼팅은 더 좋습니다

▼ S사·B사·T사 퍼터와 레이콕퍼터의 공의 스킵드(미끌림) 거리 비교

※ 테스트 | 스포츠산업기술센터 (KIGOS)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14개 통화를 365일, 24시간 언제나

NH올원뱅크

내맘대로 외화BOX

비즈니스부터 여행까지
해외 갈 일이 많은 요즘
환율 걱정 없이 외화를
보관하고 꺼내 쓰는 방법



전 세계 14개 통화를 내맘대로 외화BOX에서 한 번에!

미국달러
(USD)유럽유로
(EUR)일본엔
(JPY)중국위안
(CNY)영국파운드
(GBP)스위스프랑
(CHF)캐나다달러
(CAD)홍콩달러
(HKD)호주달러
(AUD)싱가포르달러
(SGD)뉴질랜드달러
(NZD)태국바트
(THB)대만달러
(TWD)필리핀페소
(PHP)

지금 다운로드



※ 「내맘대로 외화BOX」 서비스의 환율스프레드 우대율은 주요 통화(USD, JPY, EUR) 90%, 기타통화(CNY 등 11종) 40%입니다. ※ 상기 우대율은 별도 공지 시까지 적용되며, 추후 당행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내맘대로 외화BOX」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안내장 작성일 현재 기준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하시거나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661-3000, 1522-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율 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담당부서 : 외환사업부]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2213 (2024. 04. 01~2026. 03. 31)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NH농협은행